제3편 정착기(1960~1969)

세계연맹의 정회원국으로 우뚝 서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빈궁했던 1960년대,
걸스카우트는 문맹퇴치 활동, 구제 활동, 결핵예방 운동 등
생활개선 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봉사의 성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봉사대에 수상하는
월터 도널드 로스 트로피를 받게 되었다.

1963년 6월에는 정회원국으로 승인을 얻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전국 1만 5천 명 대원들의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
창설 18년 만에 세계 70여 개국 회원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축하 캠프파이어가 남산 야외음악당을 환히 밝혔고
그 섬광은 걸스카우트의 내일을 여는 빛으로 퍼져 갔다.

전국적으로 지방연합회가 모두 조직되었고
지방사무국이 정비되면서 각 단위대의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고
가톨릭 성당과 접적 지역 및 도서 벽지에도 걸스카우트대가 조직되었다.
훈련강사제도 등 지도자 양성이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무엇보다 각 대별로 대집회가 알차게 진행되면서
대원들의 진급제도도 정착되고
모든 면에서 진일보된 운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일본에 사는 교포 소녀들에게 한국 걸스카우트를 심게 된 것도
이 당시의 큰 기쁨이었다.

제1장 세계연합회 정회원국이 되다

창립 11년 만인 1957년 7월 제 16차 세계대회에서 준회원국으로 인준된 대한소녀단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회원국 인준을 간절히 희망했다. 당시 세계연합회 헌장에는 정회원국의 자격조건으로,
○ 전국을 대표하는 견고한 자치적 중앙연합회로 발전해야 할 것
○ 헌장, 규정, 기본원칙과 기타 요구조건의 만족스러움을 세계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을 것
○ 정회원국으로서 연회비를 내고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대한소년단은 정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세계적 수준의 대집회 실시, 반제도의 실제적 운영, 대원들의 기능장 취득 활동 강화, 대후원회 조직, 대원들에게 야영 실시 등 기본적인 걸스카우트 활동의 정착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각 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지방이사들로 지방연합회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 지방연합회의 육성에 주력키로 했다.

1. 지방연합회의 자립운영 지원

1) 지방연합회 운영체제 확립

1960년대 초에 이르러 대부분 지역에 지방연합회가 조직되긴 했으나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고 문화적 여건이 고르지 못했던 관계로 중앙과 지방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중앙연합회에서는 계속해서 각 지방의 지도자 강습을 위해 강사들을 파견했고, 지방연합회에서 봉사하는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지방연합회가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조직체를 두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틈나는 대로 중앙연합회 간사장과 [1]훈련부장 등이 지방을 순회했다. 당시 지방연합회 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 회의체
- ○ **도 연합회총회**
  도 연합회총회는 당해 도 내에 있는 등록된 성인회원 즉 이사, 대장 및 부대장으로 구성하며 1년에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도 이사회**
  도 내 이사들로 구성하며 월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도 연합회 임원**
  중앙연합회 임원에 준하여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등을 선임하고 그 임기도 중앙연합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지방이사 자격
- ○ 만 30세 이상의 부녀자로 교양과 덕망을 겸비하여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
- ○ 소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성의를 가진 이
- ○ 지도 능력이 풍부하며 자기 관내 대장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의 의논상대가 되어줄 만한 인격과 아량을 가진 이
- ○ [2]지방이사회, 대장회 혹은 간혹 대집회에까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이
- ○ 물심양면으로 혹은 기술면으로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 ○ 이상의 조건을 구비한 사람으로 소녀단의 취지에 찬동하여 초급과정을 배우고 선서를 할 것

○ 지방연합회 기능
- ○ 지방연합회는 대외적 행정사무 및 책임을 이행하도록 회장 및 대장을 돕는다.
- ○ 각 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회장, 대장 혹은 대가 만족할 만큼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들을 충고하고 조언을 준다.

1) 훈련부장 : 현재의 훈련분과위원장
2) 지방이사회 : 현재의 지방실행위원회를 지칭함.

○대원을 훈련하는 책임은 대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대장을 격려한다.
○회장을 도와서 걸스카우팅이 자기 관내에 충분히 알려지도록 노력하고 또한 다른 청소년 단체와의 유대를 견고히 한다.
○대장으로 적당한 인물을 발견해서 대장이 되도록 권고하고 회장에게 이를 추천한다.
○[3]고시위원회를 조직한다.
○지방연합회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한다.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지방연합회 운영은 자치적으로 한다. 한 푼도 대에 요구하면 안된다. 회계장부는 정식 감사를 받게 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한다.
○지방연합회 회원은 제복을 입고 삼엽핀을 꽂는다. 지방연합회 회원은 다 중앙에 등록한다.
○대에 부모들로 구성한 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위원회는 본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지방서기가 이를 기장해 둔다.

2)지방연합회에 상근 간사 파견

1962년 정부의 스카우트 육성정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자 중앙연합회는 이 자금을 오로지 지방연합회의 육성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앙연합회는 능력있고 참신한 간사들을 훈련시켜 지방연합회로 파견하고 이들의 급료를 중앙연합회가 지급함으로써 지방연합회 육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우선 지방연합회로 파견할 간사 공개 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시 최고의 유능한 인재들이 무수히 응모해 왔다. 영어, 논문을 중심으로 엄격한 시험을 치른 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질이 뛰어난 5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일부 지방연합회는 중앙의 채용지침에 동일한 조건으로 자체지역에서 선발했다.

중앙연합회 사무국에서 교육받은 이들은 1962년 7월 2일 각 임지로 파견되었다. 새로 선임된 간사들은 한초연(중앙), 김점순(중앙), 석아자(서울), 이일선(경기), 임강옥(경북), 김권지(경남), 김성숙(전북), 임영자(전남) 등이었다. 지방연합회는 이러한 열의와 의욕에 가득 찬 간사들로 걸스카우트 육성에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

3)지방연합회 이사 강습

지방연합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연합회의 살림을 맡아 주는 지방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했다.

1963년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영국 훈련강사 헬렌 맥스위니가 다시 내한하여 지방을 순회하며 임원의 역할에 관한 강습회를 실시했다. 4개 지방으로 분산하여 개최, 70여 명의 지방이사들이 참석함으로써 걸스카우트 운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프로그램에 대해 지도했고 이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다. 맥스위니는 이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대를 육성하고 대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걸스카우트를 대표하고 대외관계, 재정, 걸스카우트 정신의 유지 및 발전의 책임자로서의 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행정강습은 지방연합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었다.

○2월 10일~11일　서울, 강원, 경기 이사 20명
○2월 13일~15일　전북, 전남이사 19명
○2월 16일~17일　충북, 충남이사 10명
○2월 21일~23일　경북, 경남이사 20명

3) 고시위원회 : 대원들의 진급과 기능장 취득을 심사해주는 기관.

4)지방연합회 활동

중앙연합회는 계속해서 각 지방의 강습과 훈련에 강사를 파견하는 한편, 지방에서 봉사하는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틈나는 대로 중앙연합회 간사장과 훈련부장이 지방을 순회했다. 아직도 지방은 훈련을 담당할 강사와 야영 면허자들이 부족하여 중앙연합회에서 강사들이 직접 출장하여 강습회를 열어야만 했던 것이다. 가장 다양하게 강습이 열렸던 1963년 여름 방학 동안 지방연합회별 강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3년 지방연합회 지도자·대원 캠프

지방연합회	캠핑종류	일자	참가인원	장소
중앙연합회	야영자면허캠핑	7.10~7.14	15	구의리 캠프장
	야영자면허캠핑	7.29~8. 3	36	구의리 캠프장
서울특별시연합회	야영자면허캠핑	7.17~7.20	10	구의리 캠프장
	서울시종합캠핑	8. 4~8. 6	29	구의리 캠프장
	대별캠핑	8. 7~8. 9	25	구의리 캠프장
	대별캠핑	8.15~8.16	14	구의리 캠프장
경기도연합회	종합캠핑	8. 2~8. 7	129	인천 월미도
강원도연합회	대원캠핑	8. 7~8.12	30	안목해수욕장
충북연합회	대원캠핑	8. 5~8.11	35	양산면 송호리
충남연합회	종합캠핑	7.27~7.30	30	보은군 속리산
전북연합회	대원캠핑	8. 2~8. 9	120	변산해수욕장
전남연합회	당일캠핑	8. 7~8.10	20	전남농과대학
경남연합회	당일캠핑	7.29~7.30	144	가포해수욕장
제주연합회	제1회 캠핑대회	8.10~8.16	50	삼양해수욕장

2. 대원 진급 제도 정착

대한소년단은 1950년대 후반부터 단원활동에 영국식 진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했다. 단원들의 진급 제도는 입단한 소녀들로 하여금 스카우트 과정활동을 초급에서 2급으로, 그 다음 1급으로 진급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대원들이 단계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스카우팅의 의욕을 높여 계속적으로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1) 초급 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의 기본적인 내용인 입문과정을 마치고 선서를 하여 단복을 입고 삼엽핀을 달면 초급 스카우트가 되도록 했다. 초급 스카우트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 ○대집회에 네 번 이상 출석할 것
- ○걸스카우트 입단 등록비를 내고 쓰이는 곳을 알 것
- ○걸스카우트 선언, 규율, 모토, 슬로건을 외우고 그 뜻을 알 것
- ○걸스카우트 경례, 악수 표시를 할 줄 알고 그 뜻을 알 것
- ○호각 신호법을 할 줄 알 것
- ○도표로 길 찾기를 실습할 것
- ○본맺음, 당김맺음, 막맺음, 끈 끝 휘감기 등의 맺음법을 할 줄 알 것
- ○국기를 올바로 그릴 줄 알고 뜻을 설명할 수 있을 것과 국기의 올바른 게양법을 해보일 것
- ○걸스카우트 유래를 간단히 쓸 것
- ○대한소녀단 배지 및 세계 배지를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할 것
- ○대한소녀단 노래를 외워서 부를 것

2) 2급 스카우트

초급 과정을 마치고 선서를 하면 2급 스카우트 과정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모두 10개로 구분되며,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2급 스카우트 배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대원들의 2급 테스트는 2급 이상의 대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2급
스카우트핀
도안

- 자연계를 관찰하고 종류별로 여섯 가지씩 식별하는 자연 관찰
- 수기 신호를 통한 메시지 전하기
- 세계연맹 회원국을 지도상에 표시하기
- 30가지 중 25가지 이상의 물건을 기억하는 기억력을 체크하는 킴스 게임
- 작은 상처나 화상, 빈혈, 충격 등에 대처하는 응급처치
- 호외생활
- 옥맺음으로 기를 달고 캠프 도구를 만드는 등의 손재주
- 단가, 세계노래, 아워샬레 노래 알기
- 봉사활동에 참가했을 것

3) 1급 스카우트



1급
스카우트핀
도안

2급 스카우트 과정을 마치고 나면 1급 스카우트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능장 취득 활동과 같이 할 수 있었다. 물론, 2급 과정을 마치고 기능장 취득 활동은 안하고 직접 1급 과정을 통과해도 1급 스카우트가 될 수 있었다. 이 과정 공부를 하는 동안 대장은 대원의 외모, 몸가짐, 예절, 상식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1급 테스트 역시 1급 지도자만이 할 수 있었다. 이 1급 스카우트 내용은 모두 18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 2박 3일 캠핑을 통해 텐트치기,
  들요리,
  간이화장실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고 사용했을 것
- 1급 스카우트가 아닌 2~3명의 스카우트를 데리고 하루 하이킹을 나갈 것
- 베이든 포엘에 대해 공부한 증거를 보일 것
- 걸스카우트의 역사를 요약해서 쓸 것
- 검약의 뜻을 알고 자신의 검약한 생활을 증명해 보일 것
- 스스로 5가지 음식을 요리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것
- 간단한 의복 한 가지를 만들 것
- 만 3~5세쯤의 아기 1명이나 여러 명을 돌볼 것
- 50미터 이상 수영할 것
- 줄 던지기
- 지도 읽기와 그리기
- 동맥 절단 출혈, 사고로 인한 인사불성, 인공호흡 등의 응급처치를 할 줄 알 것
- 환자 다루기
- 봉사 캠핑에 참여했을 것
- 국제 몰스 코드를 알고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줄 알 것
- 자기 집 주위의 약도를 그릴 줄 알 것



정착기 시절 대원들의 기능연마와 야영모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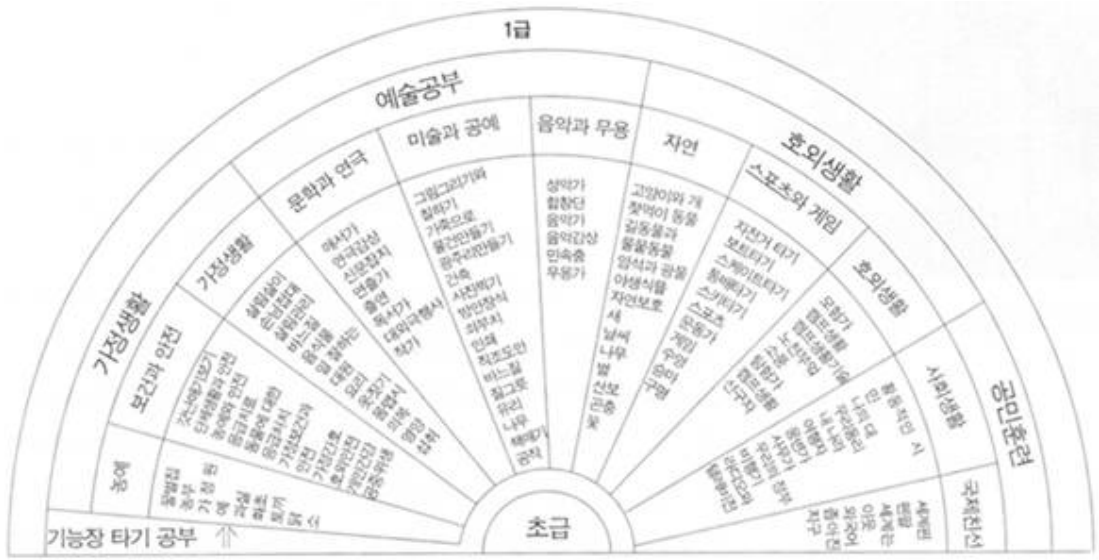


가톨릭 지역대 대원들의 야영 모습

4) 기능장 제도

2급 스카우트 테스트를 통과하면 기능장 배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능장이란 소녀들의 개성과 취미의 폭을 넓혀 주고 기능을 연마하며 지식의 정확성을 길러주어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능장 취득활동은 소녀단 교본 총분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미술과 공예, 문학과 연극, 음악과 무용, 사회 생활, 국제 친선, 자연, 야외, 스포츠와 게임, 농사, 보건과 안전, 가정 생활 등의 11가지 분야에 각각 5개에서 15개의 배지가 속해 있었다.

걸스카우트 대원들은 개인별로 또는 반원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사회성을 익히게 하고 지식과 기능을 실지로 연마해 가정과 마을, 나아가 국가와 세계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또 대원들의 직업 선택의 폭도 넓혀 줄 뿐 아니라 일상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야외 활동의 기회도 갖게 해주었다.



5) 연장대 '봉사별' 제정

걸스카우트 연장대원은 연장대 등록시험에 합격하고 선서식을 가진 후 봉사별 과정을 공부했다. 캠핑, 서비스 캠핑, 주택 약도 그리기, 요리, 육아, 옷 만들기, 문화 생활, 응급법, 국제 친선, 내 고장에 대한 지식, 구호 봉사, 가정 위생 등 모두 12개 분야로 되어 있는 이 봉사별은 이 중 3개 분야를 통과하면 별 하나, 6개 분야는 별 둘, 9개 분야를 완성하면 별 셋, 12개 분야 모두를 통과하면 별 넷을 받도록 했다.

이 연장대 봉사별은 연장대원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익힐 수 있는 분야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한편 위급한 상황에 부딪쳤을 때를 대비,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제도였다.

3. 걸스카우트 활동의 정착

1) 제1회 전국 반장 캠핑

걸스카우팅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는 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제도(Patrol System)이다. 한 반에 보통 6~8명의 대원들로 구성되는 반제도는 각 반원들로 하여금 자기 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책임을 맡게 하고 반 전체를 위해 자기를 자제하는 자세와 반원끼리 서로 협동하는 단체정신을 익히게 함으로써 대원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익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훈련이다. 이런 반에서 반장의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중앙연합회에서는 전국 반장 캠핑을 실시하여 반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을 배양하고 유능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단보에 반장의 역할, 반장회의의 기능 등 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호마다 연재하며 반제도가 정착되도록 강조했다.


제1회 전국 반장 캠핑

제1회 반장캠핑은 1960년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구의리 캠프장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67명의 반장들은 반장의 역할과 함께 기능장 배지 취득 과정도 공부하여 '캠프 생활'과 '캠프 생활 선구자'의 두 가지 배지를 수여받기도 했다.

2) 걸스카우트 주간 설정

1961년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대한소년단은 평소의 봉사심을 집중적으로 발휘하고, 걸스카우트를 지역사회에 알릴 의도로 창립일(5월 10일)을 중심으로 걸스카우트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첫날인 5월 7일은 일요일로, 구의리 캠프장에서 걸스카우트 주간 개회식과 놀이잔치를 개최하고 어버이 날인 5월 8일에는 각 대별로 '어머니 날' 기념 활동으로 카네이션을 만들고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썼다. 5월 9일에는 지방연합회회장 회의가 개최되었고 영화상영의 밤이 진행되었다. 5월 10일에는 과거의 활동을 평가하고 미래의 활동에 관한 제안을 얻기 위해 윤태림 서울대학 사범대학장, 이세정 진명여고 교장, 여용해 한국일보사 문화부장 등 대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했다. 5월 11일, 12일은 봉사의 날로 정하고 고아원 방문, 학교청소 등 각 대별로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1주일간의 주간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걸스카우트 주간'은 이후 매년 실시되어 걸스카우트 홍보, 각종 캠페인, 다양한 봉사활동의 상징이 되었다.

3) 사회발전을 위한 걸스카우트 활동

1960년, 4.19혁명 이후 비상 사태에 처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의 발전을 향한 발돋움은 두드러졌으나 생활의 개선 차원에서는 구호뿐 실천은 요원했다. 걸스카우트들은 생활 개선 면에서도 솔선수범하고 이웃을 계몽하여 다함께 잘사는 밝고 명랑한 복지 국가 건설에 힘을 보태기 위해 그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1961년 5월, 전국 지방 회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가장 시급한 개선책으로 '침 안 뱉기 운동',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 '휴지 버리지 않기 운동' 세 가지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각 지방연합회별로 포스터나 표어를 만들어 붙이고 각 가정과 학교에서 걸스카우트들이 솔선수범 하여 계몽 운동을 실천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 청결을 위해 일요일 아침마다 대원들이 조를 이루어 역 주변과 고궁을 청소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도덕심 앙양과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른 아침과 방과후 학교 앞 건널목 등지에서 교통정리를 했다. 푸른 유니폼을 입은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친절하게 시민들을 인도하는 모습은 많은 감명을 주었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걸스카우트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다.

1960년대는 국가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겪던 때였기 때문에 너나 없이 생활이 어려웠고 굶주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또한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는 걸인도 많았다.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펴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졌다. 전국의 걸스카우트 대원들도 이에 동참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하거나 혹은 거리에서 모금 운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서울에서만도 1961년 3월 한 달 동안 구호금 162,735환, 구호미 5가마, 의류 147점을 모아 동아일보사에 기탁했고 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방에서도 모금 또는 구호품을 모아 지방 신문사에 기탁하는 등 각 대별로 구제 활동을 전개했다.

걸스카우트의 사회 계몽 운동은 겨울에도 계속되었다. 서울연합회에서는 1961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결핵 예방 운동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여 결핵협회로부터 배운 결핵 예방에 대한 지식을 전했다. 또 조기 증세 발견 방법을 알림으로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활동이 인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결핵 치료 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4. 연례 모금 행사 개최

1960년 4·19혁명을 겪은 이듬해인 1961년, 새로 부임해 온 주한미국대사 버거 내외는 대한소녀단의 친구가 되었다. 외국인이 맡기로 된 국제분과의 공동위원장(Co-Chairman)이 된 버거 대사 부인은 외교사절 부인들을 중심으로 국제부인회를 조직하고 대한소녀단에게 국제 친선의 기회를 넓혀 주며 대한소녀단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당시 대외 홍보와 함께 모금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모색하던 대한소녀단은 대사 부인의 이름으로 다과회(Benefit Tea)를 열어 찬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대사 부인의 입장에서 다과를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할 수는 있으나 외교관 부인으로서 특정 단체만을 위해 찬조금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러 번의 토의 끝에 초대장은 대사 부인의 이름으로 내고, 찬조금 요청은 대한소녀단 회장 이름으로 하여 초대장 봉투에 동봉해 발송하기로 했다. 초대 대상은 여성으로 국한하여 모든 외교관 부인들과 우리 정부측 고관 부인들, 사회단체장 부인들, 여성단체 지도자들을 총망라하여 약 1,000장의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다과회의 날짜를 1962년 5월 10일, 대한소녀단 창립 제16주년의 날로 정하고 장소는 정동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저 정원으로 마련했다.


창립 16주년 기념식장에 참가한 버거 대사 부인

마침내 1962년 5월 10일 오후, 미국 대사관저 잔디밭에서 창립기념행사가 열렸다. 버거 대사부인과 회장 김신실이 나란히 입구에서 손님을 영접했고, 성의껏 준비해 온 찬조금이 모금함에 넣어졌다. 창립기념식 외에도 유녀대원, 소녀.연장대원들의 민속춤, 연극발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미8군내에 조직되어 있는 미국걸스카우트들의 찬조출연도 있었다. 이 행사는 또 하나의 역사를 창조했다. 이 날 박정희 국자재건최고회의 의장부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육영수 여사는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모든 행사를 보고 나서 “우리 정부가 있는데, 대한소녀단의 창립기념 행사를 미국 대사관저에서 해야 되겠어요. 내년에는 내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어요.”하여 이듬해인 1963년에는 창덕궁 안에 있는 가정당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갖게 되었다. 이 가정당은 조선시대에 출가 전의 공주들이 거처하던 궁이었다. 옛 소녀들의 때묻지 않은 숨결이 젖어 있는 아담한 궁에서 치러진 현대 소녀들의 단체인 대한소녀단 창립기념 행사는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미국대사관저 잔디밭에서 열린 창립기념 행사에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걸스카우트 대원들

초대장은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으로, 한국걸스카우트의 찬조요청은 회장 김신실의 이름으로 했다. 다과의 준비는 육영수 여사가 마련해 주기로 했고, 걸스카우트는 그 날 진행될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가정당 주위 곳곳에서 소녀 단원들이 각 대별로 모여 준비해 온 대집회 기능장 취득 활동을 보임으로써 내빈들이 궁내를 거닐며 자연스럽게 걸스카우트의 활동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경희루에서 열린 창립기념 행사장을 둘러보는 육영수 여사와 고황경 회장

이 날의 행사 이후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8년 동안 해마다 창립기념 다과회를 주관해 주었다.

특히 1964년부터는 비가 와도 피할 수 있도록 경복궁 내의 경회루 뜰을 창립기념 행사 장소로 제공해 주었다. 이처럼 계속된 창립기념 모금 다과회는 걸스카우트 활동을 위한 기금 조성에 큰 힘이 되었다.

5. 레이디 베이든 포엘 세계단장의 한국 방문

1) 제1차 내한

1962년 11월 22일, 세계단장 레이디 베이든 포엘의 역사적인 한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세계단장을 맞이한 대한소녀단의 뜨거운 환영과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1월 23일에는 육영수 여사의 공식 오찬초대에 이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예방했다. 73세의 노령에도 세계 각국을 몸소 다니며 걸스카우트를 격려하는 레이디 베이든 포엘의 모습은 많은 시민에게 정신적 교훈을 주었다. 각 방송과 언론 기관에서도 매우 협조적으로 보도해 주었다. 방송차 텔레비전 방송국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방송국에서 베이든 포엘을 찬양하는 노래인 '우리의 창시자(The Chief)'가 흘러나왔다. 걸음을 멈추고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레이디 베이든 포엘의 얼굴에는 감격스러운 표정이 어리었다. 11월 24일에는 대한소녀단 본부 방문이 있었다. 전국의 단원들은 태평로 회관 뜰에서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과 손재주를 준비하여 보여주었다. 소녀들의 노래 솜씨와 응급처치 실연, 특히 청주에서 온 맹인 단원들의 손재주와 합창은 큰 감명을 주었다. 각 지방연합회가 보여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경남 : 조개껍질을 이용한 공작　　○경북 : 탈춤　　○전남 : 대나무 잎 공작
○충북 : 맹인 대원의 손재주와 합창　　○전북 : 농악놀이　　○충남 : 이순신 사극
○서울 : 응급처치 실연, 게젯 전시, 유녀대 및 연장대 합창

11월 25일에는 영락교회에서 열린 전국 걸스카우트 대회에 참석했다. 각 지방연합회 단원 대표와 서울 단원 전원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세계단장은 왼손 악수의 유래 등을 이야기하며, 걸스카우트들이 나라의 역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고 대한소녀단은 세계단장에게 최고훈장으로 봉황이 아로새겨진 순금 훈장을 증정했다. 11월 26일, 조선호텔에 마련된 교육자 모임에 참석한 세계단장은 걸스카우트 운동에 대한 깊은 철학을 피력했다. 이 모임에는 각 대학학장, 교장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11월 27일 이한한 세계단장은 한국 방문이 세계 여러 나라 방문경험 중 가장 감동적이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도 무궁화 최고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걸스카우트 세계단장을 추앙했다.

2) 제2차 내한

레이디 베이든 포엘 세계단장은 1966년,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제19차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여정 중에 장녀 베티 클레이(Mrs. Betty Clay)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 이들을 맞이한 대한소녀단은 10월 3일, 이화여대 교정에서 대대적으로 걸스카우트 대회를 열고 세계단장을 환영했다. 대회 도중 예기치 못한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던 걸스카우트 대원들은 조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대회를 끝까지 진행했다. 세계단장은 이에 큰 감명을 받고 일렬로 서 있던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악수를 해주면서 격찬했다. 세계단장은 세계대회에서 이러한 한국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박수 갈채를 받게 했다. 이 걸스카우트 대회에서는 또한 전국의 단원들이 손재주를 자랑하는 수예품을 만들어 유녀.소녀.연장재별 기능 대회도 가졌다. 유녀대는 꽃그림 스크랩북이었으며, 소녀대는 각 대별로 남대문을 십자수로 놓은 방석, 4인용 테이블 센터, 냅킨 4장, 손수건 6장 만들기, 연장대는 걸스카우트 배지를 한쪽에 수놓은 연회용 핸드백을 한 대에 한 작품씩 만드는 것이 과제였다. 이 행사는 세계단장을 맞이하여 그 동안 닦은 소녀들의 기량을 보여 주는 행사로 제1회 전국 기능 대회로서도 의의가 컸다.

레이디 베이든 포엘(Lady Olave Baden Powell)



1930년 이후 걸스카우트 세계단장으로 활약한 레이디 베이든 포엘은 1889년 2월 22일 영국에서 태어났다. 남편인 보이스카우트 및 걸스카우트 창시자인 베이든 포엘 경과 우연히도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화스러운 환경 속에서 보통 소녀들과 다름없는 생활이었으나 정규적인 공부보다는 오히려 호외 생활을 즐겼고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무척 사랑했다. 음악 분야에도 소질이 있어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다. 그가 수년 간 아끼던 바이올린을 걸스카우트 영국본부에 기증했는데 영국의 소녀대. 연장대원들은 매년 이 바이올린 쟁탈을 위해 바이올린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레이디 베이든 포엘은 성장하면서 평범한 사회생활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의 개발에 정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학교에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1912년 이른 봄에 아버지를 따라서 서인도에 항해 여행을 떠났을 때 같은 배로 여행을 하는 선객 중에 흥미를 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나중에 남편이 된 베이든 포엘 장군이었다. 그들이 자메이카 섬에 도착했을 무렵 이미 사랑이 무르익었고 그 해 10월에 결혼했다.

결혼 당초부터 베이든 포엘 여사는 남편의 청소년 사업에 대단한 흥미를 느꼈고 1914년에는 이미 4년 전에 시작된 걸스카우트 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1916년에는 영국 서섹스 지방연맹장으로 활약하게 되면서부터 정력과 지혜를 동원해 그 지방을 최우수 모범지방이 되게 이끌었다. 1918년 레이디 베이든 포엘은 영국 걸스카우트 초대 총재로 추대되었고 걸스카우트 운동에 기여한 큰 공적으로 걸스카우트 최고 훈장을 받았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레이디 베이든 포엘은 걸스카우트를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여러 나라의 소녀단원들과도 접촉을 갖도록 1920년대부터 1928년 사이에 무려 다섯 번의 국제회의를 열었다. 이것이야말로 걸스카우트를 세계적인 운동체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1930년 영국걸스카우트 훈련센터인 폭스리즈에서 열렸던 걸스카우트 세계대회에는 28개국 대표들이 참가했고 여기서 레이디 베이든 포엘은 세계단장으로 추대되었다.

1932년은 걸스카우트 운동의 장래를 위해 뚜렷한 역사를 남긴 해였다. 걸스카우트 창립 2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장에서 영국의 왕 죠지 5세는 베이든 포엘 여사가 걸스카우트 운동에 끼친 다대한 공적을 인정하고 그에게 대영제국의 최고훈장 Dame Grand Cross(여자에게 주어지는 영국 최고훈장의 하나)를 수여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대전 사이에 스카우트 운동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불길같이 퍼져갔다.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세계단장인 베이든 포엘 경과 걸스카우트 세계단장인 베이든 포엘 여사가 가는 나라마다 소녀 소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었다. 걸스카우트 운동은 전쟁 동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발전을 이룩했다.

남아프리카에서 베이든 포엘 경이 영면한 후, 올러브 여사는 자기가 갈 곳은 영국의 걸스카우트라는 것을 느끼고 수개월 동안 영국의 곳곳을 여행하면서 작은 여러 마을의 대를 일일이 찾아보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명랑한 분위기를 일깨워 주었다. 전쟁이 끝나자 레이디 베이든 포엘은 다시 해외 여행길에 올랐다. 1945년 St. George 기념일에 파리에서 해방을 기념하여 걸.보이스카우트들이 펼친 기념식에 참석했고 유럽의 16개국을 여행하면서 스카우트 운동이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과 이전보다 훨씬 굳건히 그 토대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1946년에는 다시 남북아프리카와 서인도를 여행했고 영국 전역을 순회했다. 1947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그 후로는 매년 해외 여행을 계속하면서 전세계 걸스카우트를 찾아보고 걸스카우트 세계대회에 참석하면서 연설과 강연과 방송을 했다. 그의 여행기록은 실로 수백 만 마일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한 여성이라는 명칭까지 얻게 되었다. 1962년과 1966년 한국을 두차례 방문한 그는 세계 10개국 정부로부터 명예스러운 훈장을 받았고 1973년 세계FAO(Foods & Agriculture Organization)로부터 곡식의 여신의 상징인 씨리어스 메달(Ceres Medal)을 받았다. 1977년 6월 25일 88세를 일기로 운명한 올러브 베이든 포엘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 성실한 성격과 온화하고 친밀한 마음, 끊임없는 정력과 영성으로 세계 소녀들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다.

6. 정회원국이 되다


대한소녀단의 정회원국 승인을 심사하기 위해 내한한 매닝 세계위원의 대통령 영부인 예방

세계연합회는 정회원국 승인 절차에 따라 대한소녀단의 정회원국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세계위원인 매닝(Ms. Eleanor Manning)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1962년 9월 22일 우리나라에 파견했다. 호주연맹 총재이기도 한 매닝은 7박 8일 동안 체류하면서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걸쳐 걸스카우트 활동을 시찰했다. 그는 중앙연합회와 지방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실태를 살피고, 대한소녀단의 활동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일반인으로부터 지지 협조 여부, 그리고 실제 대원들의 대집회 활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지도자 훈련을 둘러보았다. 특히 경북연합회의 신명여고 대집회를 참관한 매닝은 한국 지도자의 창의적인 지도력에 크게 감명받았다. 당시 연장대 최종덕 대장은 선언과 규율의 정신에 관해 90분간의 대집회를 운영했다. 대집회를 마무리하며 경쾌한 음악과 함께 돌다리를 건너며 방정식을 풀게 하는 게임을 준비했다. 한 가지 게임으로 정서적, 신체적, 지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지도자의 창의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면 대한소녀단은 충분히 정회원국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9월 28일, 중앙 이사 및 지방 회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매닝은 대한소녀단이 대체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총평하고 특별히 봉사 캠핑 등 봉사활동면이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매닝은 또한 대한소녀단이 세계 연합회의 정회원국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하고 세계연합회에 추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우리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 덧붙여서 매닝은 대한소녀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장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킬 훈련강사(Trainer)가 많이 양성되어야겠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격 있는 훈련강사에 의해 대장 강습이 수시로 열릴 수 있고 교육받은 대장들은 교육의 결실로 바람직한 대집회 활동을 원활하게 펼 수 있다고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세계연합회에서 훈련강사를 한국에 파견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한소녀단의 정회원국 가입을 알리는 신문기사

1963년 6월 20일은 대한소녀단이 세계연합회로부터 정회원국으로 승인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8차 세계대회에서 대한소녀단은 프로그램이 세계수준에 도달되었다는 것과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었고, 국가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마침내 정회원국으로 인준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역사적인 제18차 세계대회에는 간사장 김옥라가 대표로 참석했다. 단상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은 한국 대표는 '우리는 정회원국이 되기를 원합니다.'(We would like to be a Full Member)라는 제목으로 대한소녀단이 설립 이후 역경을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 발전시켜 온 과정과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 강연은 세계대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에게 크게 감명을 주었고 대한소녀단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당시 중앙연합회로 보내온 간사장 김옥라의 편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회원국 인증이 확정된 순간 외국 회원국 대표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간사장 김옥라

> 사랑하는 전국 단원 여러분!
> 오랫동안 바라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963년 6월20일 오후5시 이곳 덴마크에서 열린 제18차 세계대회에서 우리는 세계연합회 정회원국으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제 전보로 곧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정회원국으로 승인된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레바논, 모나코, 페루 대표들이 단상으로 안내될 때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레이디 베이든 포엘(Lady Baden Powell)께서 작은 세계기 하나씩을 정회원국으로 승인된 각 나라 대표들에게 주면서 뜨거운 환영의 악수를 해주었습니다.

전국 단원들의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 36년 동안 '한국'이라는 이름을 빼앗겼던 식민지 조국, 해방으로 나라를 되찾자마자 남북의 분단과 6.25전쟁으로 세계인의 동정을 샀던 대한소녀단이 창설 17년 만에 세계 70여 개국 회원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함께 협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회원국의 가입을 축하하는 캠프파이어는 10월 9일, 남산 야외음악당을 환하게 밝혔고 그 섬광은 대한소녀단의 내일을 여는 빛으로 멀리 퍼져 나갔다.

제2장 조직의 정비와 확장

1. 전국 단원 배가 운동

걸스카우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원이며 걸스카우트의 성장과 발전은 곧 구성원의 확장과 그들의 활발한 활동에 달려 있다. 대원이 모여 대가 형성되고 대집회를 함으로써 걸스카우트의 과정과 프로그램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Korean Scout Leader Visits Knoxville

1963년 덴마크 일간지에 게재된 김옥라 간사장의 인터뷰 기사

한국에 걸스카우트가 심어진 뒤 그 뿌리가 단단해져 세계연합회의 정회원국으로 가입된 이듬해인 1964년, 대한소녀단 단세는 5,649명이었다. 정회원국 인준 이후 중앙연합회는 여러 가지로 대원 확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는 안정되고 잘사는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1967년을 온 국민이 전진하는 해로 정했다. 한국걸스카우트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소녀들에게 걸스카우트 활동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 걸스카우트의 성장과 조직 강화를 위해 한층 결의를 다졌다.

걸스카우트의 조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앙과 각 지방연합회별로 목표를 정하고 단원 배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별히 1967년 6월 1일부터 1968년 5월 30일까지의 1년 동안을 '단원 배가 운동의 해'로 정하여 전국에서 가장 단원 등록 실적이 많은 지방 연합회를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했다. 그 결과 1,209명의 대원에서 1,610명으로 대원 수를 늘린 경상북도연합회(회장 김송배)가 우승을 차지했다.

1968년부터는 문교부의 후원을 얻어 전국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에 걸스카우트 조직을 의무화하여 대원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어린이 주간', '청소년의 달' 등을 제정하여 어린이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를 중점으로 연구 검토하고자 했으며 걸스카우트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바탕에 두고 걸스카우트 배가 운동을 적극 후원해주기도 했다. 그 이듬해인 1969년에는 단원 수의 증가와 그 지방 인구의 비례로 선정하는 '단원 배가 운동'에서는 강원도연합회(회장 이경호)가 1위를 차지했다.

2. 대조직의 범위 확장

1) 가톨릭 성당 지역대 조직

스카우트 운동이 일반 대중에게 인식되면서 1950년대 후반 명동성당에는 보이스카우트가 '성모소년대'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어 활동했다. 당시 명동성당의 보좌신부였던 고 백일성 신부는 평소 청소년 운동에 관심 많았던 분으로 명동성당 청년부의 한 여대생이었던 윤석인에게 걸스카우트 대조직을 권유하게 되었다.



명동성당 소녀·연장대. 기존 유니폼과는 다른 유니폼과 상징을 착용했다.

이렇게 하여 1960년 9월 10일 명동성당 소녀 16대가 탄생되었다. 경기, 이화, 성신여중에 다니는 20여 명의 소녀들이 가입하여 매주 토요일 대집회를 갖고 일요일에는 교회 내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분기별로 하룻밤 자기 캠핑(Over night camping)을 도봉산 등지에서 가지며 야영기술을 습득했다.

명동성당대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서대문 성당, 명수동 성당 등 여러 곳에서 가톨릭 지역대가 조직되었다. 윤석인은 교회 지역대로서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프랑스에서 제작된 <성서와 스카우팅>이란 도서로 자발적으로 대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명동소녀대에는 이후 연장대도 조직되었고 그 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져 세계연맹의 임원이나 훈련강사들의 내한시 자주 대집회를 공개하기도 했다.

2) 근로청소년 지역대 조직

각급학교에 걸스카우트대가 조직되고 일반인들에게 걸스카우트가 널리 알려지면서 학생 이외의 소녀들에게까지 걸스카우트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났다. 강릉시 교육청은 1964년 2월에 각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30명의 소녀들로 소녀대를 조직했는데 이들은 모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소녀들이었다.

같은 해 5월 대장 심덕순(당시 강릉여자중학교 소녀대 대장)의 주도로 선서식을 가진 이들은 곧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의 제복과 일체의 대집회를 위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15시부터 17시까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중학 과정을 가르쳐 주었고, 그 밖의 날들은 대원들의 희망에 따라 미용, 양재, 주산 등 개인적으로 기술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활동은 1964년에 이어 1965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들은 운동회, 율곡제, 단양제 등 대외적인 행사에도 참가했고, 교통정리, 코스모스 심기, 수재의연금 모으기 등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걸스카우트 대원으로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

3) 접적 지구 및 도서 벽지 대조직

스카우트의 조직과 활동을 지역의 차이 없이 보편화하고 접적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라고 하는 뚜렷한 소속감을 안겨주자는 목적으로 1969년 10월 5일 보이스카우트 창립 47주년 기념일을 기해 걸스카우트와 보이스카우트는 합동으로 서울 남산 음악당에서 접적 지구 학교 내에 대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 날 새로 대를 조직하려고 참가한 학교는 최초로 접적 지구에서 조직된 경기도 연천군 백학국빈학교를 위시하여 강원도 철원군 근남국민학교 등 6개 학교였다.

중앙연합회에서는 새로 조직된 접적 지구 걸스카우트들에게 단복과 육성기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후원했고 대조직과 기념식을 위해 서울에 온 접적 지구 단원 100여 명을 위해 2박 3일 동안의 서울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다. 접적 지구 단원들은 남산 팔각정과 스카이웨이, 어린이대공원 등지를 돌아보고 신문사와 방송국, 반공센터 등을 견학했다. 이후 강원도연합회와 경기도연합회는 접적 지구 학교의 대조직에 주력하여 속속 걸스카우트가 조직되었다. 특히 수복 지구인 연천구 백학국민학교 걸스카우트는 대장 이상만의 열의 있는 지도로 활발히 대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연합회 회장 노일양은 하루가 꼬박 걸리는 불편한 교통사정에도 불구하고 선서식에 참가하여 이들의 의기를 북돋았다. 회장을 기다리다 해가 저물어져서야 선서식을 시작한 백학 유녀대원들은 북쪽의 대남 선전방송이 들려오는 가운데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힘을 다하겠다는 선서를 목메이게 외치며 뜨거운 감격을 나누었다.

걸스카우트는 접적 지구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학교가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조직을 확대해 갔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도서 벽지를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썼다. 재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벽지에 대해서는 매년 대원들과 지도자들의 등록비를 면제해 주었고, 교본과 보조 자료 및 단복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이들 지구의 대조직과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4) 재일 한국 걸스카우트 조직

걸스카우트 조직의 확장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소녀들에게도 관심이 돌려졌다.


일본에서 개최된 제19차 세계대회에 참석한 대한소녀단 대표단들. 이 회의에서 재일 한국걸스카우트가 거론되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소녀들을 모아 걸스카우트를 조직해야겠다고 생각해 온 김귀례는, 일본 걸스카우트 본부에 찾아가 이일을 상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본 걸스카우트는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모국 걸스카우트에 문의하라고 했다. 당시는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김귀례 혼자 힘으로 이일을 추진하기가 막막했다. 그러다가 1963년 여름, 덴마크에서 열린 걸스카우트 제18차 세계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간사장 김옥라가 아시아 캠프 참석 차 일본에 들른 기회에, 김귀례는 이일을 그와 의논하게 되었다. 간사장 김옥라는 귀국한 뒤 곧바로 재일교포 소녀들의 걸스카우트 조직 문제를 문교부와 의논했다. 이로써 재일교포 걸스카우트 조직 문제가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대두되었지만 예산 문제와 법규상 절차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조직의 실현은 쉽지 않았다.

사실 일본에 한국 걸스카우트를 심으려는 의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1953년, 당시 중앙연합회 서무부장으로 봉사했던 김재은이 동경에 거주하게 된 뒤에도 계속적으로 대한소녀단을 물심양면으로 돕자, 당시의 헌장 제3장 제10조에 의거, 중앙실행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일본에 걸스카우트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부장으로 김재은을 임명하고 1953년 5월, 필리핀에 파견되어 훈련을 받고 돌아오던 대장 양순담에게 일본에 들러 지도자 강습을 해주도록 하는 등 일본지부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과 국가적 교류가 없던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일본에 한국 걸스카우트를 싹트게 하려는 뜻은 오랜 세월을 두고 꾸준히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66년, 일본에서 열린 제19차 세계대회에 참석한 간사장 김옥라는 회기 중에 재일 한국인 소녀들의 한국 걸스카우트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모색했다. 당시 세계연합회 헌장분과위원장이던 마가렛 컬머(Ms. Magaret Culmer)와 일본걸스카우트의 국제분과위원장 스게 마사(Mrs. Masa), 그리고 한국 걸스카우트 간사장 김옥라가 삼자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세계 걸스카우트 헌장 세칙 제4조에 “본국 밖에 거주하는 걸스카우트는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걸스카우트 본부에 등록해야 하다.”(The World Association Constitution and Bye - Laws, No.4)라는 조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관계를 감안하여 한국의 뜻을 받아들여 세계헌장위원회의 양해하에 일본땅에 한국 걸스카우트를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후 일본걸스카우트와 수차례 서신으로 논의한 끝에 재일교포를 위한 한국 걸스카우트 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한국 걸스카우트와 일본 걸스카우트가 협정을 하게 되었다. 1968년 3월 13일 신임 회장 양순담과 신임 간사장 이경자는 일본 걸스카우트와 협정 조인식을 갖고자 도일했다. 한.일 걸스카우트의 협정은 한국 측의 회장 양순담과 일본측의 회장 이토 사찌고에 의해 역사적 조인식으로 이루어졌다. 합의서의 내용은 첫째, 일본에 한국 걸스카우트 지부를 설치하고, 둘째, 재일 한국인 소녀들로 한국 걸스카우트를 조직하여 대한소녀단에 등록하도록 하며, 셋째, 우리의 단복을 입고 태극기가 게양된 대집회장에서 한국의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노래를 부르며 걸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많은 교포 소녀들이 일본걸스카우트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1965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고 교포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제기되면서, 교포 소녀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철한 애국심과 한국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었다.

일본 교포들은 2세를 위한 교육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맨손 쥐고 현해탄을 건너와 무자비하도록 냉정한 일본인 사회에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과 수고 끝에 이제 겨우 자수성가하여 살 만하니까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찾아와 사회 활동의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걸스카우트 조직에도 처음에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재일 한국걸스카우트의 탄생을 위한 조인식(1968)

체류기간이 2주일로 제한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회장 양순담과 간사장 이경자는 대조직까지 마치려고 서두르던 중에 이종수(전 오사카 부인회 회장이며 당시 부인회 고문)와 배순희(당시 재일본 한국 부인회 회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3월 20일 오전 이종수의 집에서 '오사카 한국 걸스카우트 지부'가 결성되었고 정식으로 선서식을 가짐으로써 일본에 한국 걸스카우트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오사카지부 이사도 선출되었고, 한국의 본부 회관 건립 기금으로 5만원의 정성어린 성금도 모아졌다. 이어 24일에는 도쿄에서도 대가 조직되어 박기선과 뜻이 있는 6명이 모여 전원이 동경지부 이사가 되어줄 것을 결심하고 선서를 했다. 당시 동경과 오사카의 발기 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동경지부> 회장 : 박태수 / 부회장 : 손수복 / 이사 : 박기선·주정희·장왕선·박청자
<오사카지부> 명예회장 : 김진홍 / 회장 : 이종수 / 부회장 : 박분향·김점임 / 이사 : 배순희·이종순 / 대장 장숙자

4. 지도자 양성대에서 연구대로 개칭

1957년 이화여대생들을 중심으로 지도자 양성대란 명칭으로 대학생 걸스카우트가 생기면서 걸스카우트 자체에서 대학생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진되었다.

1961년 서울여자대학(학장 고황경 박사)은 대학 설립과 동시에 전교생들에게 걸스카우트 강습을 이수하도록 했다. 새로 설립된 서울여대는 독특한 생활 교육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수 훈련을 전교생에게 제공코자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걸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이었다. 서울여대는 걸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통해 두 가지 목적을 추구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훈련을 받음으로써 하느님과 나라를 위한 생의 목표가 왜 필요하며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 말보다 행동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하나는 졸업후 사회에 진출할 것을 대비하여 10대 소녀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배우고 응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닦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민족성 가운데 장점도 많지만 질서와 규율에 약하고 봉사에 예민하지 못한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걸스카우트는 이런 점들을 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1961년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여대생 훈련 캠핑이 서울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같은 해 봄에 전교생이 걸스카우트 중앙연합회의 책임 하에 걸스카우트 초급강습을 받고 일단 선서를 한 바 있는 서울여대 학생들은 캠핑 훈련을 통해 걸스카우팅의 참 묘미인 야외 훈련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1962년에는 1학년 전원이 5월 2주 동안 매주 월, 수, 금요일에 2시간씩 초급 강습과 2급 강습을 실시하면서 이후 스카우팅이 필수 교양과목의 하나로 이수하는 제도로 발전되었다.

한편 이화여대 한얼대는 봉사활동을 가장 중요한 대활동으로 정했다. 이들은 일시적인 도움보다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계속해서 한 단체를 돕기로 하고 활동을 벌여 1961년부터 3년 동안 대원들의 용돈을 저축하여 기금을 만들어 한 고아원에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다. 또 1964년부터 2년 동안 각 형무소를 방문하여 죄수들을 위문했고 1965년 크리스마스에는 극형자 400명에게 카드를 만들어 보내 사형수들의 회답을 받기도 했다.

1964년 호주의 걸스카우트 제도가 소개되면서 '지도자 양성대'라는 명칭이 '연구대'로 변경되었다. 대학생 연령층이 곧 내일의 지도자이지만 현재의 활동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정착된 연구대는 1957년 3개 대, 30여 명이 활동하던 것에서 1969년 16개대 316명으로 확장되었다.

5. 대장회 재조직

1965년 3월 서울시연합회에서 실시된 대장연구 강습에서는 참여한 대장들 사이에 대장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자발적으로 서울시 대장회(Leaders' Club)를 다시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서울시 대장회는 1950년대에도 결성된 바 있었으나 지속적인 모임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1965년에 부활된 대장회의는 종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1년간의 대집회 장기 계획안을 세우고 월, 주 단위 집회까지 세부적으로 계획해 대장회의를 하나의 대집회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제1회 대장회는 같은 해 4월 약 40명의 대장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서울시연합회 이사회에서는 대장회 활성화를 위해 이사들이 돌아가며 대장회 모임을 초대하였고 월 300원을 보조했다. 서울시 대장회는 단보를 통해 대장회의에서 논의된 월 대집회 계획안을 매월 연재하기도 했다.

중앙연합회에서는 지방마다 그 지방 내의 대장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대장회' 조직을 적극 권장했다. 대장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알찬 대집회를 이끌어 낸다는 목적으로 실시된 대장회는 서로의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협력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서로를 격려하고 지도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대장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걸스카우팅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6. 회의체의 정비

1) 전국총회

지방연합회가 설립되면서 헌장과 정관에 명시된 총회의 구성원대로 중앙이사와 지방대표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이는 총회가 제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방대표들로는 지방연합회 회장 외에 지방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1969년 전국이사회를 마치고

1968년 지방연합회가 제 모습을 갖추어 가자 매년 서울에서만 열렸던 전국총회를 지방연합회가 주관하여 실시할 것이 제의되어 1968년 경북연합회가 처음으로 그해 4월 27일, 28일 대구에서 총회를 주관했다. 중앙, 지방 이사 7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전국총회가 지방연합회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됨으로써 지방연합회의 발전과 활동상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관하는 지방은 자기 고장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 걸스카우트 활동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2) 분과위원회 및 소녀계획위원회

실행위원들을 중심으로 각 분과를 나누고 부장을 선출한 바 있는 대한소녀단은 1960년 10월 총회에서 기존의 7분과(국제부, 훈련부, 캠핑부, 대외부, 출판부, 원호부, 인사부)로 조직되어 있던 것을 훈련부(부장 양순담), 캠핑부(부장 한소제), 국제부(부장 김옥라), 대외부(부장 이달생), 출판부(부장 서희장), 봉사 및 행사부(부장 최귀덕)의 6개 분과로 조정하고 분과위원도 임명하여, 정상적인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훈련부는 훈련과 대조직을 담당하도록 했고 캠핑부는 호외 생활, 국제부는 우애일과 국제 행사, 해외 파견 등을 담당했고 대외부는 소녀단 사업의 홍보를 맡았다. 출판부는 월간지와 팸플릿 제작을 맡았다. 봉사 및 행사부는 1960년대 대원 활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봉사 캠핑과 각종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한편 각 지방연합회의 대집회나 기능장 취득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녀계획위원회 조직을 장려하여 이를 통해 소녀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 일을 맡았다.

또한 1967년 5월에는 중앙연합회 실행위원회 결의로 새로이 프로그램부(부장 황나자)를 신설했다. 프로그램부는 스카우트 운동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재검토, 발전시켜 소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이들을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지침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매달 정기회의를 통해 실제 활동에서 부딪히는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던 분과위원회는 1960년 서울시연합회가 분과위원회를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1965년에 이르러 각 지방연합회별로도 구성되어 지방에서의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돕도록 했다.

한편 1965년 3월 총회 이후 각 대의 대표 2명으로 구성되는 소녀계획위원회가 지방별로 조직되어 정기 월례회의를 갖고 대원들간의 친목과 기타 프로그램을 교환했다.

3) 전국 국제부 회의

걸스카우트가 국제적인 단체인 만큼 국제교류나 국제이해 증진 프로그램은 대원과 지도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활동 중의 하나였다.

1959년에 중앙연합회에서 처음 조직된 국제부 위원회는 각 지방연합회에도 조직되기 시작했고 국제단체임을 고려하여 중앙은 물론 지방 연합회에서도 외국인의 참여를 강조했다. 1964년 5월 8일 제1회 전국 국제부 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연합회 국제부 위원들에 의해 계획되고 진행된 이 회의는 각 지방연합회에서 국내위원 1명과 외국인 위원 1명씩이 참석했다. 중앙 국제부 위원들과 서울시 국제부 위원을 합하여 총 34명이 참가한 이 모임은 친선을 위한 토의와 국제부 위원으로서의 임무 등을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후 매년 실시되었다.

한편 중앙연합회 국제부와 봉사 및 행사부 그리고 서울시연합회가 합동으로 주최하여 1961년 10월 20일 오후에 서울시내 진명여고 삼일당을 빌려서 '국제 걸스카우트의 밤' 이라는 성대한 예술잔치를 열었다. 이 행사의 목적은 한국에 와있는 외국 걸스카우트와의 우의를 증진하고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며 걸스카우트 프로그램을 대외에 알리고자 함에 있었다.

제3장 정착기의 대원 활동

1. 걸스카우트 봉사 캠핑

1960년대 걸스카우트 대원 활동은 봉사 캠핑으로 특징지어 진다. 봉사 캠핑이란 말 그대로 봉사와 캠핑을 합한 의미다. 봉사나 캠핑은 각기 걸스카우트 활동에서 뗄 수 없는 것인 만큼 캠핑을 대원들 자신만의 경험과 즐거움으로 그치지 말고 캠핑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해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방학이나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텐트와 식품 등 모든 야영 준비품을 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찾아가 일정 기간 동안 야영을 하면서 평상시 스카우팅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나누어주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능력 있는 연장 대원들은 보다 활동적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갈구하고 있었으므로 이 봉사 캠핑이야말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1960년 5월, 세계대회에 참석한 대표단이 그리스 걸스카우트들의 봉사캠핑(Service Camping)을 보고 와서 그 해 여름 걸스카우트 야영장이 있던 구의리에서 소규모로 제1차 봉사 캠핑을 실시해 본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된 것이다. 봉사 캠핑은 1960년 시작 이후 70년대까지 지방연합회별로 각 지방에 적합한 활동으로 계속 실시되었다.

1) 구의리 캠프장에서 연 겨울학교(봉사 캠핑)


구의리 캠프장에서 지역주민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펼친 봉사 캠핑

대한소녀단 중앙연합회는 1960년 12월 27일부터 1월 20일까지 4주간동안 구의리 캠프장에서 겨울학교를 열고 마을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모아 글도 가르치고, 바느질, 위생에 관한 상식도 공부하며 게임도 즐기면서 그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벗이 되어 주었다. 겨울에 실시한 봉사 캠핑이라 '겨울학교'라고 이름 지은 이 캠핑은 대한소녀단의 제2회 봉사 캠핑이었다. 1960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중앙연합회 간사장 김옥라, 봉사부장 최기덕의 직접 지도로 3명의 연장대원들이 참가하여 한 주일 동안 처음으로 실시했던 바를 토대로 겨울학교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의리 캠프장이 있던 이곳은 서울시에 속해 있는 관계로 농촌이나 어촌 등으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반농반상의 지역으로 강가에서 모래 자갈을 나르는 노동자와 뱃사공이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은 모두 최저의 식생활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이 캠핑에는 강윤옥, 김영태, 김영자, 김은자, 오흥임 등 5명의 대장과 14명의 연장대원들이 4그룹으로 나누어 1주일씩 4주일 동안 48명의 마을 소녀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추위를 무릅쓰고 남을 돕겠다는 훈훈한 마음으로 하나된 봉사 대원들은 캠프장 안에 있는 퀀셋을 교실로 사용, 두 개의 연탄 난로에 준비해 간 식품으로 직접 식사를 만들어 먹으면서 뜻 있는 봉사 캠핑을 했다. 한글독본, 동화책, 걸스카우트 노래집, 공작 자료집 등을 교재로 국민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소녀 등 48명에게 글공부와 공작, 수예, 상식, 한자, 게임과 노래, 동화 들려주기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이 캠핑에 봉사자로 참가한 소녀와 지도자들은 6시 30분 기상해서 하루 3부제의 수업에 식사준비, 퀀셋 실내 청소를 끝으로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도 늘어가는 학생 수와 그들의 실력이 향상됨을 보면서 방학을 보람있게 보낸다는 생각에 힘든 줄을 몰랐다. 구의리 캠프장에서의 봉사 캠핑은 그 후 1964년에도 서울 연장대 제22대, 32대 대원 64명에 의해 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전국으로 번진 봉사 캠핑

중앙연합회에서 시범을 보인 봉사 캠핑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으로 불붙어 곳곳에서 봉사 캠핑이 이루어졌다. 봉사 캠핑은 이 시기 걸스카우트 대원 활동을 대표하는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ㅇ서울 연장대 봉사 캠핑

1961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연장대 제7대(서울여상)는 대장을 포함하여 14명의 전 대원이 소사국민학교에서 고등공민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걸스카우트 초급 훈련을 실시했다. 그들은 걸스카우트 지도에만 그치지 않고 틈나는 대로 아침에는 마을 청소와 교통 정리, 오후에는 인근 부락을 찾아가 아이들의 손톱 발톱을 깎아 주었고 저녁에는 부락 주민들에게 응급 처치와 생활 개선을 위한 강의를 했으며 학교 교우들이 모아 준 의류 350점과 연필 300자루 등 구호품도 전달했다.

ㅇ충북 연장대 봉사 캠핑

충북연합회 청주여상 연장대원들은 1962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전라북도 마을에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대장 조영옥의 지도 아래 1월 5일부터 22일까지 청원군 남이면 석곡리에서 14세에서 50세까지 30명의 문맹 부녀자들을 모아 겨울 학교를 열었다. 문맹자 중엔 글을 조금씩 아는 사람도 있어 훨씬 수월했으며 수업중 간간히 걸스카우트 단가나 새나라 노래를 가르치기도 했다. 한편, 청주사범학교에서는 대장 박영숙의 인솔 아래 연구대원들이 청원국 강외면에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부녀자 대상 읽기, 쓰기, 수예품, 수공품 만들기 등을 가르쳐 그들의 메마른 삶을 살찌게 했다.

ㅇ전북 연장·연구대 봉사 캠핑

1962년 여름, 전라북도 김제 연장대 아카시아대(대장 손인숙) 대원 12명은 하기봉사를 목적으로 김제군 영천 부락을 찾았다. 당시 이 마을은 40세대 280여 명 중 대학 중퇴자 한 명을 제외하고 여자는 국민학교 졸업자가 세 명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신문이나 라디오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었다.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봉사 캠핑을 편 대원들은 마을 청년회장의 안내로 먼저 부락의 상황을 파악하고 질서 있고 효과적인 활동계획을 세웠다. 26일 밤 집회를 갖고, 27일 새벽 6시 기게양을 마친 대원들은 부락 조기청소에 들어갔다. 이후 대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준비해 온 의료품으로 치료와 예방 교육, 특히 아동 보호에 주력하였고 화장실에 소독약도 뿌려주는 등 가내 위생시설도 보살폈다. 일부는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는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펼쳤고 생활개선 강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200여 명의 훨씬 넘는 주민이 청강하는 등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연구대원들도 완주군 상판면 용암리 용바위라는 벽촌을 찾아가 의식주 생활 개선을 위한 봉사 캠핑을 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문화적인 생활 개선을 계몽했다.

ㅇ경기 연장대 봉사 캠핑

이밖에도 1964년 8월 3일부터 9일까지 경기연장대 제19대는 양평군 반월면 황서리에서 여름학교를 열고 어린이 돌보기, 책 읽어주기, 가정위생, 한글강습 등을 실시했다. 또, 같은 해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연합회의 인천연장대 제26대는 인천 백마장 농장에서 과일 따기와 김매기를 했다.

3) 세계 최고의 봉사상 '월터 도널드 로스 트로피' 수상

1961년 서울특별시연합회 소속인 중앙여고 연장 51대와 중앙여중 소녀 11대는 북아현동 마

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벌였다. 그 마을 주민들 중에는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전화다이얼의 숫자도 모르는 부녀자들이 많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겨울학교를 열기로 했다.

대원들의 제안에 동의한 대장 정옥희와 탁은숙은 몇몇 대원과 함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부녀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빌려줄 것을 허락 받은 다음, 통반장을 통하여 문맹 부녀자들을 모아 한글 쓰기와 숫자 읽기 쓰기를 가르쳐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안겨 주었다. 커다란 도표를 그려 시계 보는 법과 전화 다이얼 돌리는 법, 또한 부녀자들이 공부하는 동안 그들을 따라 온 아이들을 돌보며 이야기 들려주기, 게임, 노래 가르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1962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봉사 캠핑 일정을 마쳤을 무렵 겨울 학교에 참석한 20세부터 60세까지의 80여 명 전원은 한글과 숫자를 깨우칠 수 있었다. 당시 아현동으로 신축 이주한 중앙여중.고는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였으나 걸스카우트들의 봉사활동으로 학교와 주민들은 하나가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 연장 51대 대원들의 봉사활동은 다음 해인 1963년에도 계속되었다.

중앙연합회에서는 중앙여고 연장51대의 봉사활동이 그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하고, 세계 각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봉사활동을 전개한 대에게 지급하는 월터 도널드 로스 트로피 수상 신청에 추천했다. 마침내 제18차 세계대회에서 대한소녀단의 정회원국 인준과 함께 대한소녀단의 연장 51대와 소녀 11대에게 '월터 도널드 로스 트로피'수상이라는 영광이 안겨졌다.

월터 도널드 로스 트로피 (Walter Donald Ross Trophy)의 기원

캐나다에 사는 도널드는 그 곳 걸스카우트의 봉사활동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도널드는 걸스카우트 대장 활동을 열심히 하는 미국인 가족과 친교를 가지면서 스카우트 운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도널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운동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 훌륭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걸스카우트에게 상을 베풀어 줄 것을 제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큰 선물이 1950년 7월, 제13차 세계대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그 상의 이름은 월터 도널드 로스 트로피라고 불리어 지게 되었다. 각 회원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세계연합회는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장 훌륭한 봉사를 한 대를 선발하여 이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 트로피는 원형은 '아워 샬레'(Our Charlet)에 보존되어 있고 수상자들에게는 그 모형이 상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원형 트로피에 수상자의 이름과 나라 이름이 새겨지는데 한국에서는 1962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1963년 제18차 세계대회에 참석했던 간사장 김옥라가 받아온 이 트로피는 서울 중앙여고(당시 차두용 교장) 전교생 앞에서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현재 트로피는 중앙여고에 보관되어 있다. 역대의 트로피 수상국은 다음과 같다.

- 1950 인디아 St. Margy's 학교 (철도 사고 피해자를 도와 줌)
- 1963 그리스 Cephalenia와 Aante의 소녀대 (지진이 났을 때 피해자를 도와 줌)
- 1954 오스트레일리아 Kyogle 소녀대 (수재민을 도와 줌)
- 1955 캐나다 해양 스카우트 공수대 (1년 이상 병원 일을 도와 줌)
- 1957 남아프리카 전국을 대상 (100년째 해에 특별한 일일 일선을 행함)
- 1958 파키스탄 Dacca의 소녀 2대 (Daccadp 천연두, 콜레라 등이 유행할 때 접종에 도움을 줌)
- 1959 영국 리버풀의 대 (1947년부터 병원 봉사를 계속함)
- 1960 남아프리카 Serowe의 소녀대 (지역 사회를 위한 뛰어난 봉사)
- 1962 오스트레일리아 소녀 제1다이아몬드 계곡대 (산불이 났을 때 구조봉사)
- 1962 한국 연장 51대, 소녀 11대 (마을 부녀자들에게 2년 동안 문맹퇴치 봉사)
- 1964 영국
- 1965 필리핀
- 1968 멕시코, 캐나다
- 1969 파키스탄, 오스트레일리아
- 1970 미국

도널드 로스 트로피는 로스 씨의 사망과 함께 중단되었고 그 후 세계위원회는 '올러브상(Olave Award)'을 제정해서 같은 내용으로 시상하고 있다.

4) 광산촌 황지리 봉사 캠핑


강원도 황지리
광산지대에서 실시된
봉사 캠핑

중앙연합회는 강원도 황지리 광산 지대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임시 탁아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들의 후생과 교육을 위해 1963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봉사 캠핑을 실시했다. 황지리는 황지선 개통으로 알려진 광산촌이었다. 이 곳 주민의 수는 약 2만 명으로 그 중 상당한 숫자가 일정한 직업도 갖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곳이었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할 틈도 없이, 일하러 나간 부모들을 도와 아이들을 맡아 돌봐 주거나 위생강좌, 간단한 옷 만들기, 그릇 씻기 등이 더 급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대원들은 브라우니 강습에 주력해 모두 6명이 2급 강습에 통과했다. 이들은 각각 소녀대와 브라우니대를 만들기로 하고 강원도연합회 간사 강영자가 계속 대조직을 돌봐 주기로 했다.

메마른 탄광 지대에서 최소한의 영양조차도 공급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펼친 이 봉사 캠핑은 이후 널리 알려져 기독교 세계봉사회와 각 학교대로부터 물자 원조를 받을 수 있었다. 간사 황나자의 성의 있는 봉사와 사랑으로 어린이들이 걸스카우트의 따뜻함을 전해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2. 제1회 전국 연장대 야영대회


제1회 전국 연장대 야영대회

1964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6박 7일 동안,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전국 각 지방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자연 속의 생활을 통해 협동정신과 봉사정신을 기르자는 목적을 갖고 제1회 전국 연장대 야영대회가 개최되었다.


폐영식에서
함대 사령관께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참가자격은 연장대원으로 선서를 마친 후 6개월 이상 된 자, 야영 면허증을 받은 대장, 캠핑을 도와줄 이사 등으로 정했다. 지방연합회별로 텐트는 물론 야외세면대, 소각장, 야외화장실 설치를 위한 모든 도구를 준비해 와야 했고 참가자는 개인별로 쌀 소두 6되, 담요, 베게, 식기류 등 모든 준비품을 가져와야 했다. 당시 참가비는 [4]2,000원이었다.

별도로 만들어진 야영복은 없었으나 일정 모양을 정해 놓고 입도록 했는데 흰색 블라우스에 초록색 짧은 바지나 초록색 치마를 입도록 했다.


연장대 야영대회가
끝난 이후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지방에서 참가하는 대원들을 위해 서울지역의 대장과 대원들은 민박을 제공했다. 강릉까지는 새벽 6시 30분에 서울에서 기차를 타 저녁 5시 30분까지 11시간을 타고 도착할 만큼 긴 여정이었다.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 제주 등지에서 모인 대원과 지도자 약 180여 명은 기능 훈련, 게임과 노래, 수영, 관광, 하이킹 등의 야영 생활을 통해 스카우트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모든 대원이 하나가 되는 화목의 기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전국의 연장대원이 한자리에 모여 우애를 다지며 대자연 속에서 소녀들에게 꿈을 키워 준 제1회 전국 연장대 캠프로서 의의가 컸다.

---

4) 현재의 40,000원 정도임.

당시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table>
<tr><th>시간 \ 날짜</th><th>8. 3(월)</th><th>8. 4(화)</th><th>8. 5(수)</th><th>8. 6(목)</th><th>8. 7(금)</th><th>8. 8(토)</th><th>8. 9(일)</th></tr>
<tr><td>07:00</td><td rowspan="14">06:30
서울 출발</td><td colspan="6" rowspan="2">기상 / 기게양 / 아침식사 / 검열</td></tr>
<tr><td>08:00</td></tr>
<tr><td>09:00</td><td rowspan="2">설영</td><td rowspan="2">캠프 게젯
만들기</td><td rowspan="6">소금강
관광</td><td rowspan="2">방문의 날
수공예품
만들기
및 전시</td><td rowspan="12">오죽헌
경포대
관광</td><td rowspan="2">예배</td></tr>
<tr><td>10:00</td></tr>
<tr><td>11:00</td><td rowspan="2">점심식사</td><td rowspan="2">점심식사</td><td rowspan="2">점심식사</td></tr>
<tr><td>12:00</td></tr>
<tr><td>13:00</td><td colspan="2">휴식</td><td>휴식</td><td>철영</td></tr>
<tr><td>14:00</td><td rowspan="2">수영</td><td rowspan="2">수영</td><td rowspan="2">수영</td><td rowspan="2">폐영식</td></tr>
<tr><td>15:00</td></tr>
<tr><td>16:00</td><td>개영식</td><td rowspan="2">저녁식사</td><td rowspan="2">저녁식사</td><td rowspan="4">경포역
출발</td></tr>
<tr><td>17:00</td><td rowspan="3">저녁식사</td><td rowspan="3">예배
캠프파이어</td><td rowspan="3">전체
캠프파이어</td></tr>
<tr><td>18:00</td></tr>
<tr><td>19:00</td><td rowspan="2">17:35
강릉역
도착</td></tr>
<tr><td>20:00</td><td>저녁식사</td><td>캠프별
친목회</td></tr>
<tr><td>21:00</td><td colspan="6">지도자 회의</td></tr>
</table>

이듬해인 1965년 8월 2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군 기지인 진해 해군통제부에서 제2회 '전국 연장대 야영대회'를 가졌다.

제주도지사 시절부터 걸스카우트 운동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던 당시 해군 통제부의 김영관 사령관은 참가자를 위해 구축함을 내어 주고, 야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모든 시설과 운영을 지원해 주었다.

대원들은 배를 타고 한산섬을 돌면서 저절로 나오는 시를 읊었고 노래를 불렀다. 해변의 울창한 숲과 어우러진 대원들은 흡사 태고의 모습 그대로를 연상시켰다.

또한 경남, 부산, 진해 임원들의 정성어린 협조와 배려는 한층 유익한 야영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껍질로 대원들이 손수 만든 조개 세공품들은 가히 명공들의 그것과 같았다. 브로치, 목걸이, 팔찌 등 다양한 작품들은 추억이 담긴 기념품으로서 보고 싶었던 가족들의 선물로 한몫을 했다.

좋은 여건과 풍족한 자연은 전국에서 모인 소녀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감명을 주는 생활교육장이 되었다.

3. 세계우애일 행사

1) 전국 우애일 기능장 배지 워크숍

1961년, 제4회 전국 우애일 행사를 서울 정동에 있는 젠센 기념관에서 가졌다. 이 행사는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는데 전국에서 소녀.연장대원 중 희망자 115명의 대원들을 모아 기능장 배지 중 국제 친선에 관한 '세계핀'과 '세계는 이웃' 기능장 취득 과정을 이수하게 했다. 이 워크숍은 전국 대원에게 국제 교육의 기회를 주었고, 연극과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써 두터운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또 세계걸스카우트연합회를 공부하고 회원국들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 워크숍에 참가한 서울연합회 대원 49명은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에서 참가한 지반대원 66명을 집으로 초대하여 민박을 통한 우정의 다리를 놓음으로써 의미 있는 우애일을 보냈다.

2) 전국 영어웅변대회

1967년 3월 18일, 세계우애일을 기념하여 제1회 전국 연장대원 영어웅변대회가 대한 공론사 강당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국제단체로서 걸스카우트의 국제우애증진과 애국하는 길을 모색하고 영어의 국제적인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열린 것이었다. 이 대회는 걸스카우트 연장대원만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1972년부터 전국의 여고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걸스카우트 대원뿐 아니라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제1회 대회 수상자>

1등상 이월(전남연합회 연장대) / 2등상 이혜숙(충남연합회 연장대) / 3등상 한영숙(충남연합회 연장대)

4. 스카우트 전진대회

1966년 5월을 맞아 대한소녀단은 대한소년단과 합동으로 스카우트 전진 대회를 가졌다. 1966년을 대한소녀.소년단의 '전진의 해'로 삼자는 취지 아래 전국의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조국 근대화 대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 이 대회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애국심과 의용심, 지도력과 경건한 자세로 학원 정화의 선봉으로 우뚝 서는 계기를 만들고자 실시된 것이었다.

5월 29일 서울운동장 육상 경기장에서 열린 전진대회에는 소년단 명예총재인 박정희 대통령, 소녀단 명예회장인 육영수 여사 및 여러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사열식과 기념식에 이어 대원들의 우렁찬 환호성 속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수십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 오른 후 대회장에서 중앙청 앞까지 시가 행진이 펼쳐졌다. 이 행진에는 상명사범대학 체육과 이영숙 교수가 퍼레이드팀을 준비, 출연시킴으로써 더욱 행사를 돋보이게 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결 의 문

1. 우리는 신념과 우애로서 전국 스카우트 운동의 발전에 헌신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순결과 근검의 의지를 지니고 알찬 내 조국과 겨레에 봉사하기 위해 조국 번영의 일터에서 희생적인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실천하는 척후가 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형제의 우애로서 세계평화의 원대한 목표를 위해 국제 친선의 우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결의한다.
4. 우리는 청소년 선도의 달을 맞아 진정한 육성을 위한 스카우트 활동의 거국적인 발전을 위해 전진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의한다.
5. 쾌활하고 순종하는 스카우트의 정신으로 내 이웃과 내 학원의 참신한 터전을 이룩하기 위한 학원 정화 운동에 선봉이 되어 개척자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결의한다.

1966년 5월 29일 대한소녀단.대한소년단

한편 본 대회 하루 전날인 5월 28일 오후 8시부터는 자유센터 앞 광장에서 약 4,000여 명의 대원과 지도자가 모여 전야제를 가졌다. 대한소녀단과 보이스카우트 배지 모양의 틀을 설치, 여기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된 전야제는 각 대원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브라우니들의 가장 행렬과 소녀대의 강강술래는 이 날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5. 주한 미국걸스카우트와의 연합활동


한미 합동 집회

한·미 협정으로 대한민국 내에 미8군이 계속 주둔하게 되자 그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자연 미8군내에 미국걸스카우트 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한·미 걸스카우트 간에 연합 집회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68년부터는 주한 미국걸스카우트 주최로 대천에서 매년 여름 캠프가 개최되었다. 1968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처음 열린 캠핑에 대한소녀단 대원 7명이 참가해 즐거운 야영 생활을 경험했다. 이 캠핑의 특징은 일정만 대장들이 계획하고 세세한 부분은 대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6. 지역사회 봉사활동

1960년대 걸스카우트의 활동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무엇보다도 '봉사'였다. 국가적으로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오던 기간으로 경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로 정신혁명과 국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1968년 12월에 '국민교육헌장'이 제정·공포되기도 했다.

걸스카우트는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전국적으로 계몽운동과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봉사하는 스카우트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1) 국민의식 계몽운동

○ 산림 보호 캠페인

당시 우리 국민에게 가장 시급하게 벌여야 했던 사업은 산림 보호 캠페인과 식목 행사였다. 전국의 걸스카우트 대원들은 국민의식 고취를 위해 노란 어깨띠를 착용하고 일시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대원들은 직접 식목 행사에 참가하여 국민들의 의식 계몽에 힘썼으며 우리 고장 푸르게 가꾸기,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조기 청소와 휴지 줍기에도 앞장섰다.

○ 미아 방지 운동

걸스카우트는 상춘객으로 붐비는 봄철을 중심으로 미아 방지 운동을 벌였다. 특히 서울시연합회는 1965년 한 해 동안, 매 주말마다 창경원에서 부모를 따라 나온 어린이들에게 이름표를 달아 주며 미아방지 운동을 펼쳤다. 25명이 한 조가 되어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의 3팀으로 나누어 2세부터 6세까지의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이름표를 달아 줌으로써 사전 미아 방지의 역할을 했다. 이 운동은 시민들의 호응을 크게 얻었으며, 각 지방연합회로 확산해 실시되었다.

○ **침 안 뱉기 운동**

전국의 대원과 지도자는 결핵협회의 후원을 받아 그들과 함께 시가행진과 포스터 전시, 인쇄물 배부 등을 하며 침뱉지 않기 캠페인을 벌였다. 각 지방연합회 별로도 이에 대한 계몽 운동을 계속 전개했으며,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결핵 예방 운동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2) 병원 봉사활동

1963년부터 대한소년단은 각 지방연합회별로 병원 봉사에 주력했다. '병원봉사'라는 별도의 핀을 제정하여 이 활동을 독려했다.

1963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연합회 대원 70명은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가제 접기와 붕대 감기를 도왔고 5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장애아동과 놀아 주거나 간호사의 일을 도와주었다. 또 서울연장대 제22대는 인천 기독병원과 남부병원에서 화약 폭발 부상자를 간호했다.

경북연합회 대원 20명은 1963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동산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부산시연합회 대원 10명은 아동자선병원에서 갓난아이의 수유를 도왔다.

강원도연합회 대원 20명은 춘천도립병원과 강릉도립병원에서 크리스마스를 위한 환자 위로 잔치를 벌였다.

3) 구호 봉사활동

○ **버선 모으기 운동**

1964년 한 해 동안 직접 만든 버선을 모으기 시작한 걸스카우트는 연말에 모두 190켤레의 버선을 모아 충남 대전에 있는 성애양로원으로 보내 그곳의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언 발을 따뜻하게 해드리기도 했다.

○ **헌옷 모으기 운동**

헌옷 모으기 운동은 6.25전쟁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던 때부터 지속된 봉사활동의 하나였다. 더욱이 매년 하절기마다 홍수가 발생하여 수재민이 생겼기 때문에 중앙연합회에서는 수재민이나 이재민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년 내내 전국적으로 헌옷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 **국군 위문 봉사활동**



각 대에서 그려온 카드를 모아 파월 장병들에게 보냈다

매년 일선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와 위문품을 보내오던 걸스카우트는 1966년부터는 베트남에 파견된 파월 장병들에게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들어 보냈다. 각 대에서 대집회 활동으로 직접 그려서 모은 카드가 지방연맹으로 모여졌고, 이것이 다시 중앙연맹으로 모아져 월남으로 전해졌다. 자유 수호를 위하여 진력하는 우리의 파월 장병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정성의 손길이었다. 걸스카우트의 봉사활동이 전해지자, 대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선 장병을 위문했다. 중앙연합회를 비롯하여 지방연합회에서도 손수 음식을 장만하여 가져왔고, 농구공이나 배구공, 탁구대 등을 기증했으며 직접 위문공연을 하기도 했다.

4) 기타 봉사활동

○ 태극기 바로 달기 운동

당시에는 태극기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태극기를 바로 달지 못하는 가정이 많았다. 이에 걸스카우트 대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태극기와 도청이나 시청에서 후원 받은 태극기를 가지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태극기 바로 달기 운동을 벌였다.

○ 깨끗한 사회 만들기

1960년대 말부터 푸른 제복의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비를 든 모습은 어느 거리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거리 쓸기 운동을 전개했다. 각 대마다 학교 주변 쓸기, 내 집 앞 쓸기를 솔선수범 하여 깨끗한 사회 조성을 위해 힘썼다. 이외에도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정리, 고아원.양로원 방문, 화단 가꾸기, 휴지 줍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 고등 공민학교 무료 봉사

전북 연장 19대(대장 김순영) 대원들은 1969년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특수한 처지에 있는 전주시 평화동 고등공민학교를 도왔다. 이 곳은 당시 인가도 받지 않은 학교였지만 약 3년 전에 뜻 있는 사람 몇몇이 방 두 칸을 빌려 국민학교만 졸업한 학생 약 90명에게 무료로 계속 수업을 하도록 설립한 곳이었다. 그러나 11월 당시에는 설립자 한 사람만 남아 있고 선생님들도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이에 전북 연장 19대 대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2~3시간씩 수예, 체육, 미술, 음악 등 예능 과목을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지도에 필요한 수예자료, 학용품, 벽지, 문종이 등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제4장 지도자 양성

1. 첫 훈련강사의 탄생

걸스카우트 운동에서 대활동을 책임지는 대장의 역할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분야로 걸스카우트 운동의 성공여부는 바로 대장 양성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걸스카우트에서는 세계적으로 훈련강사(Trainer) 제도를 두어 자격을 갖춘 자원지도자가 신임 대장들을 훈련시키고 양성시키도록 제도화했다.

1963년, 정회원국으로 가입된 대한소녀단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도자 양성을 책임질 훈련강사의 양성이었다. 훈련강사 후보를 키운 대한소녀단은 훈련강사 심사를 맡아줄 세계훈련강사의 내한을 소망했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세계연합회 훈련강사 마가렛 왓슨(Ms. Margaret Watson)이 1964년 4월 23일 내한했다. 지리교사였던 그는 호주 태생으로 나이는 41세였다.

중앙연합회에서는 왓슨을 맞기 전 3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전국 간사 워크숍과 후보훈련강사 준비 모임을 갖고 전국의 간사와 훈련강사 후보자들이 모여 대비 훈련을 가졌다.

내한한 마가렛 왓슨은 먼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 있는 훈련강사 후보들을 위해 예비강습을 실시하고 후보들의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후보자들의 대를 방문 대집회를 참관하고, 대기록물 등 대운영 실태를 심사했다. 5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훈련강사 후보들의 강습 수준을 심사하기 위해 소녀 연장대 반장 강습과 유.소녀.연장대 대장 강습 캠프 지도자 훈련을 연속적으로 실시했다. 6월 한 달은 대구, 부산, 대전, 전주, 광주의 순서로 지방을 순회하며 대원, 대장, 이사강습 등의 훈련 일정을 가졌으나 왓슨은 무엇보다 훈련강사 후보들을 위한 개별적 지도와 훈련에 가장 정성을 쏟았다. 한국을 떠나기 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훈련강사 후보자들을 위한 최종 합숙 강습을 갖고 훈련강사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테스트를 통해 모두 5명의 첫 훈련강사들이 탄생되었다.

<최초의 훈련강사 자격 취득자> 윤용자(유녀대), 김옥라(소녀대), 윤석인(연장대), 이경자(야영), 하태경(특수분야)





훈련강사 자격 취득을 위해 왓슨은
무엇보다 대집회의 성실한 운영을 중요시했다



태평로 회관에서 지도자
강습을 실시하는 왓슨



기의식을 지도하는
마가렛 왓슨

마가렛 왓슨의 편지(4개월간 한국에서 체류하며 훈련강사 양성을 도왔던 마가렛 왓슨이 이한하기 앞서 연맹지에 게재)

대장 여러분께

내가 한국에 와서 행한 훈련은 훈련강사 양성을 위한 훈련으로, 훈련강사 양성이 금번 제가 내한한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외 많은 지도자들이 이 훈련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시기 원합니다. 훈련강사는 대를 맡고 있는 대장이어야 하며 다른 지도자들에게 자기 경험을 토대로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훈련강사들에게는 본직이 있어서 이 일을 해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 유급 훈련강사이나 대개는 무급 지도자들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분들이 훈련강사로 지도자들에게 강습을 주는 시간은 자기 자신의 쉬는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번에 받은 훈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대한소녀단에는 이와 같은 훈련강사 자격을 갖춘 분이 몇 분 더 계십니다. 아직도 그분들에게 모자라는 부분은 대한소녀단 본부에서 차차로 도와주어서 완전한 자격증을 받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훈련강사는 아무쪼록 자기 전문 분야에 전문가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연장대 훈련강사, 소녀대 훈련강사, 브

라우니 훈련강사, 캠프 훈련강사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또한 중앙본부에서 인정하는 특별분야 강사도 있습니다. 이상의 강사들을 훈련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한국에 와서 내가 해야 할 의무의 일부였습니다.

좋은 훈련강사가 되는 길은 제일보기 좋은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기능면에도 숙달되어야 하고 1급을 끝내야만 합니다. 앞으로 훈련강사가 되실 분은 먼저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좋은 대장이 되는 것과 1급을 패스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캠프 야영 면허증을 갖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한국에 다시 와서 더 크게 일을 잘 하는 여러분을 만나 보는 것입니다.

대장으로서의 일을 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강습 중 로프로 여러 사람이 뭉쳐서 에베레스트산 오르기 게임을 했는데 이것은 선언과 규율로 꽉 묶인 우리 전대원에 비할 수 있습니다. 로프가 약하면 산 오르기에 실패하듯이 우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언과 규율을 굳게 밟고 서지 않고 한 사람이 따로 빠지면 스카우트 프로그램은 흔들릴 것입니다. 대장이 행한 태도 하나 하나 그대로 대원들에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대장이 던진 파문은 그것이 곱던 밉던 널리 널리 퍼지기 마련이니까요

레이디 베이든 포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재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서 기울인 노력보다 더 큰 수확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이 어렵고 중요한 일을 위해 여러 가지 희생이 동반되나 그 가치도 큽니다. 특히 국제 캠핑 같은 대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가하는 곳이면 노력을 다해서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바라며 무한한 발전을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마가렛 왓슨 -

2. 제1회 전국 간사 워크숍



제1회 전국 간사 워크숍에서 제육대회 후 표창하고 있다.

1962년, 일 년 동안 지방연합회에 파견되어 열심히 일해 온 간사들은 실무에 종사하면서 부딪친 문제들을 토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애로사항을 수습하기 위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국 간사 워크숍이었다.

1962년 10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린 제1회 전국 간사 워크숍에서는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사들로부터 행정연수를 받고 걸스카우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전달, 프로그램 연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각 도 연합회의 고충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며, 걸스카우트 지도자 훈련까지를 겸했다. 이 전국 간사 워크숍은 해마다 열려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간사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1965년 전국 간사 워크숍은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렸는데, 이 워크숍은 훈련강사 워크숍과 같이 열려 프로그램 연구와 사업 내용의 검토, 계획, 재정 문제 등을 다루었다. 전년도에 미국걸스카우트에서 2주일간 행정 훈련을 받았던 서울시연합회 총무 윤용자가 전달 강습함으로써 걸스카우트 행정 훈련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66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중앙연합회에서 열린 전국 간사 워크숍에서는 중앙연합회 간사를 비롯한 8개 지방연합회에서 17명이 참가하여 회장 고황경의 '걸스카우트의 정신' 강의를 시작으로 YWCA 고문 총무인 박 에스터의 '유급간사와 Volunteer와의 관계' 그리고 대외부 고문 신동준 박사, 박성종 신부 등 외부강사의 강의가 있었다. 이 워크숍의 후평회에서 3박 4일의 기간이 실무를 배우기에는 짧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하여 시간을 갖고 각 지방연합회별로 사업계획을 서로 듣고, 앞으로의 걸스카우트 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토의 및 외국 걸스카우트의 프로그램을 배우는 실무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하는 등 이 워크숍은 간사들의 걸스카우트 활동 의욕이 돋보이는 워크숍이었다. 이러한 간사들의 건의는 1969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앙회관에서 열린 전국 강사 워크숍에서 반영되어 실무경험을 통한 제반사무에 관한 사항과 1970년도 전국 캠핑에 대비한 실무훈련이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 후 전국 간사 워크숍은 해마다 계속되다가 전국 실무자 연수회와 전국사무국장회의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3. 지도자를 위한 통신강좌 개설

걸스카우트 운동이 널리 확산되자 걸스카우트를 알고자 하고, 그 과정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요구와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요구를 참작한 중앙연합회는 시간과 거리 상 부적합한 형편에 있는 전국의 성인 회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신을 이용한 강습을 통해 걸스카우트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통신교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66년 뉴질랜드에 파견되어 훈련받은 황나자가 광활한 그 곳에서 통신교재를 통해 지도자 강습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 우리 훈련에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발송된 자료에 의해 주로 초급 과정을 개별적으로 자습하게 한 다음, 연 5회에 걸친 문제지에 답하여 중앙연합회로 보내면 그것을 채점하여 합격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1967년, 처음으로 이 테스트에 통과한 19명에게 통신 강좌 초급과정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제5장 국제교류

1963년, 우리나라가 세계연합회의 정회원국이 된 후 가장 활발해진 활동 중의 하나가 국제 교류 활동이다. 지금까지 외국의 훈련강사와 세계연합회 임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었던 것과는 반대로 정회원국이 된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대원과 지도자들이 외국을 찾아가 한국을 알리고 소개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세계우애일을 맞아 주한 외교사절들이 고유의상을 입고 참여했다

1. 세계대회에 대표단 파견

세계대회는 걸스카우트 세계연합회의 정책 결정 기구로 매 3년마다 한 번씩 지역을 달리하여 개최되며 각 정회원국에서 파견하는 2명의 대표와 단세에 비례한 옵저버들로 구성된다. 옵저버들은 세계위원회의 판단과 주최국의 협력에 따라 세계대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된다. 세계대회는 전세계적으로 걸스카우팅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기준을 정한다.

대한소녀단은 1960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열린 제17차 세계대회에 최초로 정대표를 파견했다. 1957년에 있었던 제16차 세계대회에서 대한소녀단이 준회원국으로 인정됨으로써 3년의 주기를 두고 열리는 세계대회에 비로소 참가할 기회를 얻어 회장 김신실과 간사장 김옥라가 참가했다. 비록 투표권 없는 대표이기는 하지만 대한소녀단이 세계연합회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대회였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7차 세계대회에 처음으로 대한소녀단이 참석함

1963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덴마크 노보그에서 열린 제18차 세계대회에는 간사장 김옥라만이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대한소녀단은 정회원국으로 인준받았다.



1966년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9차 세계대회에 간사장 김옥라와 함께 전북연합회장 최흥숙.서울시연합회장 김봉희.충남연합회장 이경자.경남연합회장 조수복 등이 옵저버로서 참가했다. 특히 이 회기 중에 재일교포 자녀들의 대한소녀단 지부 조직을 위해서 세계연합회 및 일본연합회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그 기초 작업을 완결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1969년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20차 세계대회에 회장 양순담이 참석했다. 이 세계대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걸스카우트 회원국들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아태지역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 한·미 지도자 교환 사업

미국걸스카우트와 한국 걸스카우트는 서로 지도자를 교환하여 상호 이해와 우의를 다지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다방면의 국제 교류 관계를 가졌다.

1962년, 한국 걸스카우트에서는 간사 조순자가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미국의 버몬트, 뉴욕, 워싱턴, 보스톤을 방문하여 한국의 걸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미국걸스카우트 지

방연합회의 행정, 대집회, 캠프 등을 참관했다. 특히 미국 전역과 여러 나라에서 온 연장 대원 등 약 1만 명의 대표들이 모이는 시니어 라운드 업 캠프(Senior round up camp)와 해양 스카우트 활동을 참관했으며 뉴욕의 에디스 메이시 훈련센터에서 연장대 지도자 훈련을 습득했다.

같은 해 미국에서는 교환 강사로 도날드 폴라드(Mrs. Donald Pollard) 훈련강사가 내한했다. 미국 걸스카우트 렉 웨일즈 지방 부회장과 13년 동안 걸스카우트 대장을 역임해 온 폴라드는 국제 친선을 목적으로 한 교환강사로 8월 6일 내한하여 10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각 지방을 순회하며 친선을 도모했다. 폴라드는 대집회, 캠핑, 지도자 강습 등에 참관하고 미국걸스카우트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폴라드는 특히 한국의 봉사 캠핑을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했다.


국제친선을 목적으로 내한한 도날드 폴라드 교환강사

1965년 9월 13일에는 1961년에도 다녀간 적이 있는 한미 교환 강사 나오미 쟈멘(Mrs. Naomi Jarmann)이 서울연맹 훈련강사 윤용자와의 교환사업으로 내한하여 2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훈련을 해 주었다. 특히 연장대 프로그램 중 수공예 부문을 담당했는데 부회장 양순담, 간사장 김옥라의 가정에 유숙하면서 한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생활했다.


한미교환강사 나오미 쟈멘

3.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가

1960년 9월 18일부터 31일까지 필리핀 바귀오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지구 걸스카우트 훈련강사 회의에 간사 김인수, 조순자가 참석했다.

1960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미국 걸스카우트 제35차 전국대회에 부회장 임성의, 이사 양순담, 간사 이경자가 참석했고, 대회가 끝난 다음 각 지방으로 흩어져 한국 소개하면서 훈련도 받았다.

1961년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세계연합회 주최로 필리핀 바귀오시에서 열린 '아세아 지역 훈련강사 회의'에 조순자, 김인수를 파견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만 모이는 첫 회의였다.

1964년 4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주최 클리브랜드 국제 프로그램 회의에 간사 김혜남이 참석했다.

1964년 7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서울시 연합회 총무 윤용자는 아일랜드에서 열린 제1회 정회원국 훈련강사회의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영국과 미국을 시찰하고 지도자 강습과 행정 훈련을 받았다.

1966년 필리핀 걸스카우트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에 전북연합회 회장 최홍숙, 서울연합회 회장 김봉희, 충남연합회 회장 이경자, 경남연합회 회장 조수복이 참석했다.

1966년에는 훈련강사 황나자가 뉴질랜드에서 걸스카우트 훈련을 받았다.

1966년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제6차 세계 청소년 회의(World Assembly of Youth)에 양순담이 참석했다.

1967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연맹 국제분과위원장 회의(World Association of Girl Guides and Girl Scouts International Commissioners' Meeting)에 한영숙, 주우희가 참석했다.

1967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벨기에 모제트에서 열린 제9차 가톨릭 성인 지도자 회의에 훈련강사 윤석인이 참석했다.

1968년 4월 1일, 미국에서 열린 세계 훈련강사회의에 훈련강사 황나자가 참석했다.

1968년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영국 보그너에서 열린 영국 연장대 모임(England Ranger Round-up)에 훈련강사 윤석인이 참석한 후 3개월 동안 영국에 머무르며 팍스리스, 와도우, 브로내리온 훈련센터 등에서 훈련을 받았고 프랑스 전국 연장대 서비스 캠핑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1968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정니(Jongny)에서 열린 훈련강사 및 고문을 위한 세계회의에 간사 강윤옥이 참석했다.

1968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린 Olympic Session of Young Leaders에 지도자 이양훈, 백희자가 참가했다.

1969년 3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연합회 대장 정임순은 뉴질랜드 걸스카우트 초청으로 순회 훈련강사 훈련을 받았다.

4. 대원들의 국제캠프 및 행사 참가

1961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스위스 아워샬레에서 세계 연장대 모임(Juliett Low Session)이 열렸고 연장 대원 이리라와 이미자가 참석했다.

일본걸스카우트 창립 15주년 기념 및 정회원국 가입 기념 '아시아캠프'가 1963년 7월 31부터 8월 7일까지 일본에서 열려 대장 김옥라, 이일선과 대원 김경이, 이홍자, 고미군, 홍태화, 이광애, 지순혜, 한선저, 김성림 등 8명이 참가했다.

미국걸스카우트 연장대 국제대회(Senior Round up)가 1965년 7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미국에서 열려 대장 조옥영, 김순영과 함께 대원 남재은, 한현숙, 김선희 등 3명이 참석했다.

1966년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캠핑이 열려 대원 박순영, 박혜련, 방정옥, 조일주, 한인성 등 5명이 참석했다.

1966년 8월 8일부터 23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동서 문화 교류 회의에 대장 남재은과 대원 박혜경, 김하주가 참석했다.

1967년 6월 9일부터 22일까지 대만에서 열린 대만걸스카우트 캠프에 대장 김정자와 대원 김혜숙, 김예자, 장윤애, 김영희가 참가했다.

1967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호주에서 열린 호주 횡단 여행에 대원 김혜정, 이광옥이 참가했다.

1968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일본 도가쿠시에서 열린 국제 캠핑에 대장 선우신영, 석아자과 대원 김태원, 김경희, 이숙이, 문은주, 김영신, 지미련, 유경숙, 안재순 등 9명이 참가했다.

1968년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스웨덴에서 열린 국제 캠핑에 대장 김봉희, 박무경과 대원 백봉옥, 이성숙, 이혜숙, 신연균, 한명순, 박문주, 김혜자, 정문희, 김미례, 김명숙, 한동주, 한명춘, 김혜영, 김미 등 14명이 참가했다.

1968년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 차즈텍에서 열린 멕시코 올림픽 청소년 캠프에 대장 김혜남과 대원 단혜향, 심명진, 김예리, 조은주가 참가했다.

1969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국제 캠핑에 대장 김창희, 양복순과 대원 김은옥, 박현주, 양덕희, 한혜영이 참가하고 계속하여 1969년 7월 18일부터 7월 30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 캠핑에도 참가했다.

제6장 출판·홍보 사업

1. 연맹지 '껄·스카웉'

1957년부터 월간지로 선보인 연맹지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최신의 정보와 걸스카우트 지식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1962년 한영숙, 정삼례, 한영희, 김경임 등 자원봉사자와 김옥라가 중심이 되어 '번역회'라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토요일마다 모여 세계연합회에서 보내온 자료와 책자들을 번역하여 연맹지에 싣고 대장들에게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제공했다. 창시자 베이든 포엘이 스카우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동기가 된 저서 '소년들을 위한 스카우팅(Scouting for Boys)'을 함께 독회하고 완역하여 매달 연맹지에 연재했다.

1965년 2월호(제11권 1호)부터는 전라북도편 소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방소식'란을 게재함으로써 각 지방연합회의 소식을 모든 걸스카우트가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껄.스카웉'은 대장편, 대원편, 브라우니편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장편에는 세계연합회 간행물의 번역문이나 베이든 포엘 전기 번역문, 세계연합회나 걸스카우트 운동의 이해를 위한 정보, 중앙소식이 주로 게재되었고 대원편에는 새로운 노래, 게임과 함께 호외생활이나 기능장 배지 타기에 관한 정보 그리고 매호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안내를 게재했다. 브라우니편에는 다른 나라의 브라우니 이야기와 브라우니 대장들을 위한 정보와 지도 방법 등을 실었다.

1967년 4월호(제12권 11호)부터는 '껄.스카웉'을 '걸 스카웃'으로 제호를 바꾸고 판형도 4×6배판에서 국판으로 변형했다. 또한 등사물로 발간되던 것을 인쇄물로 바꾸자 산뜻하고 품위있는 월간지로 탈바꿈되었다. 또한 중앙연합회에 따로 프로그램부가 신설되면서 단보의 편집방향도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다루어 지도자들에게 교본과 강습 이외의 실제 대집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꾸몄다.

1968년에는 우리나라 표준 표기법에 맞추어 제호가 다시 '걸스카우트'로 바뀌었고 그 해 9월에는 문공부에 정기 간행물로 등록했다.

2. 교본 및 참고 도서

1) 유녀대(브라우니) 교본의 발간

그 동안 하나의 걸스카우트 교본을 유녀.소녀.연장 대원이 함께 사용하다가 1963년 유녀대원용을 따로 분리하여 브라우니 교본을 발행하였다. 미국 브라우니 교본을 간사 정삼례가 번역하고 훈련강사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여 출판했다.

2) 소녀대 교본 제1차 개정

1955년 미국걸스카우트 교본을 번역하여 발행된 교본 이래로 10년의 세월이 흐른 1965년, 마침내 우리 실정에 맞는 걸스카우트 교본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교본은 우리 한국 소녀들의 현실과 생활 제도, 발육 상태까지 참작.고려하여 고황경, 양순담, 김옥라, 이경자, 윤용자 등에 의해 작성되어 걸스카우트 창립 19주년 기념일에 발간되었다.

3) 참고 도서의 발행

1968년 1월 대원들이 대집회에서 사용할 게임집도 새로 발간되었다. 과정 공부를 위한 놀이, 추적 게임, 퀴즈 게임, 관찰력 게임, 포복 게임, 나침반 읽기, 맺음법 게임, 호외 게임, 보물 찾기, 크리스마스 게임, 앉아서 하는 놀이, 뛰는 게임, 흥미를 위한 것으로 나누어 실었고 178가지의 유녀대원을 위한 게임들도 함께 실려 출판되었다.

같은 해 8월, 걸스카우트 노래책도 새로 출판되었다. 그 때까지 불러오던 노래들을 모으고 걸스카우트의 노래와 가곡, 각국의 민요, 캠프송과 크리스마스송 이외에도 브라우니를 위한 노래까지 곁들여 전대원들이 언제 어디서도 애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양순담은 베이든 포엘의 전기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연맹지에 계속 연재하던 것을 모아 1968년 7월 10일에 출간했다. 베이든 포엘의 극적인 생애가 담긴 140쪽의 이 전기 번역판은 대원만이 아니라 스카우트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읽혀졌다.

3. 대외 홍보 활동

1960년대는 걸스카우트 활동이 정착되면서 홍보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었다. 대한소녀단은 1961년 5월 1일 라디오 좌담회를 열어 창립 15주년을 자축하고 15년간 대한소녀단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는 한편 앞으로 소녀단 활동이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역사회가 원하는 소녀단 운동'이라는 제목 하에 서울여대학장 고황경, 서울대학 사범대학장 윤태림, 간사장 김옥라 등이 참가해 '젊은이 시간'이라는 코너를 통해 걸스카우트 운동의 저변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었다.

1964년 5월 10일 창립기념일을 계기로 걸스카우트 운동을 널리 사회에 소개하는 방송이 5월 24일 동아방송의 '라디오 스케치' 시간에 방송되었다. 서울시 교육감과 걸스카우트 회장 및 간사장이 참석해 걸스카우트 운동의 육성에 관한 좌담, 대원들과 지도자의 게임, 노래, 인터뷰 등으로 15분간 방송되었다.

1965년 10월 29일에는 중앙일보사와 공동으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스카우트 운동의 전망과 스카우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중앙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 좌담회에는 최복현 서울시 교육감, 주월영 경기여고 교장, 손정순 동덕여고 교장, 미국걸스카우트 훈련강사 자멘, 간사장 등이 참가했다. 이 좌담회에서는 우선 학부모들에게 걸스카우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야외 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제기되었다. 자멘은 미국걸스카우트의 경우 신학기마다 1년간의 계획을 세워 자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주로 해 걸스카우트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다고 소개했고 또 걸스카우트를 교육방침의 일환으로 설정, 학교의 발전을 꾀하는 길로 걸스카우트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1968년 3월 20일 기자들을 초청한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에는 서울시 대장 및 대원, 지구위원장과 함께 중앙연합회, 대외부 위원들이 대한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월간중앙의 기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대장과 대원들이 대활동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기자들에게 대한소녀단의 활동에 대해 올바로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제7장 역사적인 회관 신축

1. 회관 건립을 위한 노력

전국적으로 단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태평로 회관만으로는 지도자 강습이나 대원 행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회관을 건립해야겠다는 욕구가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다.

1966년 창립 20돌을 맞은 창립기념 행사에서는 그 동안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사회 변천 속에서 굳굳하게 성장해 온 대견스러운 20년을 격려하며 축하하는 다과회를 육영수 명예회장이 마련해 주었다. 축하내빈 약 500여 명이 참석, 예년처럼 걸스카우트 육성을 위하여 찬조금을 내주었고 전국의 대원들이 새 회관 건립을 위해 정성으로 마련한 작품들이 100원 균일가로 판매되었다. 바자품목은 유아 모자, 유아 앞가리개, 도시락 주머니, 편지꽂이, 냅킨, 냄비집게, 상보 등으로 총 533점 중에서 250점이 판매되어 2만 5천원이 모아지기도 했다.

사임한 이경자 간사장 후임으로 보건사회부 부녀 아동국장으로 일했던 선우신영 이사(당시 회관건축 위원장)를 신임 간사장으로 임명하고 모금활동에 주력토록 했다. 중앙연합회는 회관 건축을 위한 대지를 새로이 구입하기로 하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해 먼저 걸스카우트 소유로 된 구의리 캠프장과 태평로 회관을 매각키로 했다.

1967년 5월 22일 현 걸스카우트 회관을 건립할 안국동에 대지 118평을 매입하고 그해 10월 12일 기공식을 갖고 회관 건축에 들어갔다. 회관 건립이 진행되는 동안 부딪쳤던 어려움과 난관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뜨거운 성원은 '우리의 회관은 우리의 손으로 이룩해 보자'는 전국 대원들의 열의 있는 참여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리하여 회관 건축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 '나도 한 몫'카드 판매가 실시되었다. 장래에 세워질 회관 투시도가 그려진 카드를 1장에 40원씩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성금으로 보태자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일은 건축비 마련을 위한 영화 '크레오파트라'의 상연이었다. 부족한 건축 기금의 보조를 위해 명예회장 육영수 여사는 세기상사 국쾌남 사장이 기증한 영화 '크레오파트라'의 유료 시사권을 걸스카우트에 기증했다. 입장권 판매에 대원들이 열성적이었고 1967년 3월 24일 오후 7시 대한극장에서 성황리에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 모임에서 250여만 원의 수익금이 건축 자금으로 모아졌다.


안국동 163번지에
신축되는
걸스카우트 회관

1968년 5월 10일 창립 22주년 기념일에는 박대통령 내외가 건축기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경회루에서 모금다과회를 베풀어주었다. 이 자리에서 스카우트에 관심 있는 인사들의 정성어린 성원으로 450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한편 문교부에서도 5백만 원을 보조해 주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뜨거운 성원이 줄을 이었다. 당시 김판기 미국 뉴욕 한인회장이 건축기금으로 6백불을 보내왔고, 이 밖에도 대육성위원, 성인회원들과 세계연합회 회원국들의 정성어린 협조로 걸스카우트 회관이 차차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서울시연합회(회장 이소정)에서는 걸스카우트에서 야외 훈련의 중요성을 파악한 금융단 모임에서 캠프장 조성을 위해 기부해 준 300만원 중 150만원을 회관 건립비로 기여하기도 했다.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건축자금 부족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은 회장 양순담과 간사장 선우신영이 공사 중에 겪은 갖가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 회관 준공


마침내 준공된 회관의 준공 기념 테이프 커팅

1969년 2월 21일은 그토록 숙원하던 한국 걸스카우트 회관이 준공된 날이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63번지, 대지 163평에 건평 496평의 5층 건물이 우뚝 세워진 것을 바라보는 걸스카우트 가족들의 마음은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준공식에 모인 사람들은 소녀단을 시작하던 23년 전 사무실로 썼던 현재 중앙청 1층 계단 밑의 한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 그것도 들창도 없이 채광이 안 되던 컴컴한 방을 회상하면서 감회에 젖었다.


간사장 선우신영에게 감사장 수여

이 날 준공식에는 300여 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 건축위원장 이숙희의 경과보고가 있은 뒤 감사장, 감사핀의 증정 순서가 있었다. 신축회관 4층에서는 준공식에 맞추어 세계우애일 기념 국제전시회를 열어, 식이 끝난 후에는 지방연맹별로 세계 여러 회원국들의 전시품을 관람했다. 이 날 감사장과 감사핀을 받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감사장 수상자> **건축고문**: 이선식 **시공자**: 성창현(동창공영사 사장)
현장감리: 유경철 **건축위원장**: 이숙희 **건축위원**: 선우신영.이경자
한미재단, 서울연장71대(동덕여고), 서울유녀1대(동북국교)

5층 회관은 이후 2차 공사를 통해 건평 927평의 10층 건물로 증축되었다.

제8장 스카우트활동육성법 제정

스카우트 운동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활동임이 널리 인식되자 정부에서는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스카우트운동에관한법률'을 제정, 적극 지원해주고자 했다. 법조계에 있는 보이스카우트 이사들이 주축이 되어 전문 위원들로 하여금 1962년부터 착수한 이 법률제정 작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이 모아져 1969년 4월 26일, 국회의장에게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4월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5월 6일에 문공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0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스카우트의 염원이었던 이 법의 통과는 걸스카우트 활동에 매우 고무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1969년 7월 28일, 법률 제2118호로 공포됨으로써 스카우트 활동은 국가의 법률로 확고하게 뒷받침 받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육성법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뒷받침해 주는 방안도 모색되었다. 즉, 문교부에서는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국민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한 학교에 한 대 이상의 걸스카우트대를 조직하도록 장려했다. 창립 당시, 걸스카우트에서 각 학교를 개별 방문하여 교장을 설득하며 다니던 때와는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함께 1970년대에는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 주관 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단체에 대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며 법인세 및 영업세법에 의한 과세, 소득 재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한 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삽입하는 제 규정을 담은 조세 감면 규제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기도 했다.

※스카우트활동육성법은 부록에 별도 기재되어 있음.

<제3편 끝>